

신임 집행부 출범

지난 1월1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9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5대 대한태권도협회회장으로
최세창(56·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씨가
선출되었다.
신임최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 바대로 1월24일 24명의 신 이사회를
구성했다.

Mr. Choi, Sae-Chang has newly elected as
the President of KTA according to the former
President
Mr. Kim, Un-Yong's intention to resign at the
annual congress of 1991



The commencement of the new executives



신·구회장 이취임

지난 20년간 태권도협회를 이끌어온
김문웅 회장과 뒤를 이어 신임회장에
선출된 최세창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구회장은 태권도발전을 위해 안팎에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Mr. Choi, Sae-Chang, the
newly-elected President & the
former President Mr. Kim, Un-Yong



최세창회장 시도지부 방문

최세창회장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시도지부를 방문, 태권도 현황과
지방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최회장은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도지부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일체감을 조성해 나갈 것과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향하여

바르셀로나를 향한 시위가 멈추었다.
코치 2 선수 10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선수단은 1월 9일 한겨울의 찬바람을
가리며 엄한 20일의 장기합숙훈련에
들어갔다.

1월 9일 부터 한 달간 대천체육단 정지훈련원에서
체력훈련을 마친 선수단은

2월 8일 대동선수숙으로 옮겨 바르셀로나를
향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The national team has started its long
term training for the '92 Barcelona
Olympiad from Jan. 9.





'90년도 결산이사회 개최

(1. 8, 올림픽유스호스텔)

전임 김운홍회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결산 이사회.
'91년도의 예산액으로 총 7억 8천 6백여만원을
심의하였는데 이는 '90년도의 6억 7천 6백여
만원보다 18%증가된 것이다.

The Board of management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inancial year of 1990



대한태권도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90년도 사업결산과 '9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The annual congress of 1991

'9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1. 17,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The awarding ceremony of
the Diploma for the members
of Technical committee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학금
수여·협회표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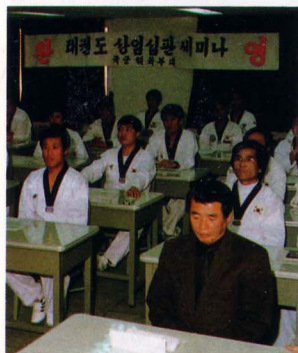
(1. 31,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위: 기술심의회 김인석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가운데: 우수선수 50명에게 총 3백 6십만원의
장학금을 수여
아래: 우수도장상(사진), 지도상,
경기상을 수상한 영광의 얼굴들

상임심판원 임명 및 교육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44명의 상임심판원을 임명하고
3월18일과 19일 이틀간 국군체육부대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The appointment of full time judges
and instruction for them



“태권도 문화의 질적향상에 힘쓸터”

『오랜 군생활의 아침일과가 태권도로 시작됐던 인연으로 태권도협회의 일을 맡아 체육발전에 봉사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지난 1월1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91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제15대 대한태권도협회회장으로 선출된 **崔世昌 회장**(56·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평소 체육계에 봉사하고 싶었다』며 의욕에 찬 취임소감을 밝혔다.

지난 20년간 태권도협회를 이끌어왔던 **金雲龍** 회장의 뒤를 이어 새회장에 선출된 **崔** 회장은 **金前** 회장의 **고교**후배이자 **합참**의장을 지낸 4성장군 출신.

대구가 고향인 **崔** 회장은 육사 13기로 '57년 육군소위로 임관, 수경사령관, 제1군단장, 제3군사



취 임 사

령관, 합참의장 등 군요직을 두루거친 전형적인 군인으로 4성장군출신이 아마추어 경기단체장을 맡기는 체육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崔회장은 3군사령관시절 예하부대장병들에게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익히게 하는 등 태권도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온 5단의 유단자이기도 하다.

대령이었던 70년대초에 이미 육군태권도부를 담당해 태권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崔회장은 군 시절부터 태권도의 보급에 힘써와 앞으로 태권도계의 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崔회장은 육군사관학교시절부터 몸에 배인 태권도외에도 야구, 테니스, 스키, 골프 등도 수준급인 만능 스포츠맨.

다음은崔회장의 취임 인터뷰 내용이다.

• 앞으로 협회의 운영방안은

국가체육정책의 기본방향인 청소년·생활체육에 적극 부응하는 태권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가 투기종목으로 일반인들에게 나쁜인상을 갖지않도록 경기장 환경개선, 일선도장의 운영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태권도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화단결, 상하절서유지 등 태권도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태권도가 외국에서는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침체되고있는 기현상이 있는데 이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 민족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의, 협회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간 세계화 과정을 통해 보여준 전임 김운용회장과 원로여러분, 그리고 국내 태권도의 굳건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공적을 되새기면서 보다 태권도를 발전시켜야할 사명감에 어깨가 절로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권도는 90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라는 지속적인 도전과 안으로는 '88 서울올림픽 이후 도래된 생활체육시대를 선도하는 종목으로 뿌리내려야하는 환경개선요구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위해 화려한 정책 제시보다는 태권도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관을 무릅쓰며 해 오신 일들을 계승 발전시키며,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숙원의 해결과 21세기 태권도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기반구축에 치중코자 합니다.

첫째,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

둘째, 종주국의 질적(質的) 능력의 신장,

셋째,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일선지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위한 내실화작업은 어느 개개 인만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화합과 일치단결만이 유일한 키(key)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이제 저는 전국 3백만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확고한 신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태권도장이 교육기관으로 활성화되어 스포츠나 기술보다는 「도」를 가르키고 「사람」을 만드는 전인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재교육과 자질향상이 필요하고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태권도가 진학을 위한 수단이나 투기종목으로 인식해서는 저변인구확대는 물론 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엄정한 판정체제로 경기환경을 개선하고 실업팀육성과 겨울철스포츠로 전환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생활체육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한 시설을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일선조직과 각 도장에 대한 협회의 지원 방안은

회원들의 권익확대를 위해 계속노력하겠지만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업무전산화도 추진해나겠습니다.

● 해외주재사범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직접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세워두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지원보다 종주국으로서 태권도문화를 선도해 나갈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림픽정식종목채택에 대한 협회의 구상은

2번에 걸친 시범종목 채택으로 일단 정식종목 채택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체육부 KOC 세계연맹 등 유관기관과 협

조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협회의 법인화 계획은

협회의 법인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확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체육단체가 국고보조수준에서 벗어나 국내사업 등을 통해 재정자립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협회를 이끌어나가면서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최회장은 각 시도지부와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술선수범하는 모습과 원로·선배들의 공로를 인정할줄아는 겸허한 자세가 바로 무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하는 최회장에게서 인화단결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태권도

崔世昌신임회장 프로필

1934년 4월17일 대구출생
1953년 3월 경동고졸
1957년 6월 육군사관학교졸(13기)
1969년 6월 육군대학졸
1974년 7월 국방대학원졸
1980년 7월 육군 보병제20사단장
1981년 8월 수도경비사령관
1983년 6월 육군 제1군단장
1984년 7월 육군본부 참모차장
1984년 8월 한양대 행정대학원졸
1985년 12월 육군 제3군사령관
1987년 12월 합참의장
1989년 4월15일 육군대장 예편
1990년 8월(現)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제15대 집행부 출범 — 프로필



이사 · 임정태

林正泰, (주)한국와이씨전자 사장

1948년에 경북에서 출생했다. 1966년에 대구상고 1970년에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1985년에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986년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90년에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수료했다.

1978년도부터 한국와이씨전자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86년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임정태회장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태권도인으로 태권도 사범 경력을 갖고 있는데 1989년도에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회장에 취임, 태권도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상공부장관 수출유공자 표창 및 대통령 수출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1987년도에 영덕중고등학교 영해장학회를 설립,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사 · 우종림

禹鍾淋.

1931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경희대 체육학과와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1950년에 군에 입대해 32년간 복무 했는데 보병 제1사단장,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

고 1982년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후 1983년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1987년도에 의료보험 연합회장에 취임한 이래 1990년도까지 재직했다.

훈장으로는 을지, 충무, 화랑 무공훈장 미동성훈장, 보국훈장 3·1장, 천수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했다.

태권도 고단자인 우종림이사는 군재직시 태권도를 통해 장병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도록 하는 등 군대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1989년 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재직해왔다.

평소 많은 독서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는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다.



이사 · 백운대

白雲大, 국영공업 상무이사

193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 사천고와 부산대 조선공학과, 동국대 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했다.

1960년도에 군에 입대하여 30년간 복무한 그는 1990년도에 대령으로 예편했다.

태권도 고단자로 국제심판(1급)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그는 육군 태권도부 심사위원장으로 육군의 태권도 보급에 기여했으며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가원기술심의회 임원을 역임해왔다.

불교신자인 백이사는 취미로 골프를 치고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셋을 두고 있다.



이사 · 노희덕

盧熙惠, 서울대 교수

1934년에 출생, 경동고를 거쳐 서울대 체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서양체육사를 전공했고 이후 1988년도에 국민대 대학원에서 서양사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태권도와는 1973년도에 대한연맹 전무이사직을 맡으며 인연을 맺어 80년도까지 재임했으며 1981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연맹 부회장으로 대한태권도발전에 기여해왔다.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1962년도에 체육공로상(국방부), 1984년도에 대한민국 체육상(체육부)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이사 · 이금홍

李今洪, 경인미술관 대표이사

1936년에 서울에서 출생했다. 보성고와 연세대 경제과, 고려대 대학원 경제과를 졸업했다.

1962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중앙교통주식회사 부사장, 남흥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낙원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덕수호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해온 이금홍회장은 1981년도에 경인미술관 대표이사로 취임, 오늘에 이르며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월간미술세계 발행인도 겸하고 있다.

연세대 재학시절 총학생위원장을 맡기도 한 이금홍회장은 태권도 고단자로 1980년도에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으로 재직했고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기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사 · 이상구

李常九

1933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여 1963년 서울 대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서독대사관1동서기관, 주빈첸영사·주서독대사관참사관, 주서독공사, 주일공사를 역임한 태권도 고단자.

1984년도에 내외통신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88년도에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89년에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3·1장등 을 받았다.

평소 취미생활로 미술과 서예를 즐겨하는데 수준급. 가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셋이 있다.



이사 · 류상렬

柳祥烈, (주)논노부회장

194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1963년에 경부고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1971년도에 논노패션 전무겸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1981년도에 부회장으로 승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권도 유단자인 류상렬이사는 1983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취임한 이래 오늘날까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유도, 테니스 등 운동에 조예가 깊은 유상렬이사는 (주)논노의 육상 선수단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 '86년 월드컵태권도대회에는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해 종합우승을 거두었으며 '87년도에 체육포장을 수상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제15대 집행부 출범 - 프로필



이사 · 황경로

黃慶老, 한국금박공업(주) 대표이사.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를 거쳐 '51년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소위로 임관, '56년에 대위로 예편했다. '81년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

1983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85년도에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남녀종합우승을 거두어 '86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했다. 또한 '90년도에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1미터80센치미터의 훗칠한 키에 95킬로인 그는 취미로 등산을 다니고 있으며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셋이 있다.



이사 · 김현우

金賢宇, 제주교역(주) 사장.

1947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경동고와 한양대 요업공학파를 졸업했다.

삼화실업(주), (주)조광피혁, 범홍상사, 보르네오스마트라 무역회사를 거쳐 1982년 10월에 제주교역(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고 운동으로는 골프를 즐긴다.



이사 · 박세영

朴世英, 한주통산(주) 대표이사 회장.

1940년에 출생하여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파를 졸업했으며 '82년도에 하바드대 경영대학원(AMP), '90년도에 연세대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1969년도부터 '82년도까지 대우실업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한·튀니지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한·인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한·알제틴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주재레소토 왕국 명예총영사를 역임했다.

한편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체육계 발전에도 이바지한바 있다.

취미생활로 골프를 치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셋이 있다.



이사 · 정세화

鄭世和, 요업개발(주) 사장

1935년에 출생하였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서독국립요업학교, 서독종합도자기연구소를 수료하였다. 1966년 서독에서 GER-ASI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귀국, 1967년에 한국요업주식회사 이사로 자리를 옮긴후 1970년도에 대표이사로 취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3년도부터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이사, 사단법인 한국요업총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편, 1990년도부터 민자당 중국전문위원겸 국제분과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서울대 경영대학원, 행정대 학원을 수료한 정세화사장은 1984년 1월 미국 BRIDGEPORT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포상으로 2번의 대통령상표창과 산업훈장 석탑, 철탑, 동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사 · 조석구

趙錫九, (주)인켈 사장.

1942년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 국문과 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 자과정을 수료했다.

1975년도부터 (주)인켈에서 이사로 재직하였고 1985년도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며 한국경제발 전에 기여해 1988년도에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 기도 했다.

음악감상이 취미인 그는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셋이 있다.



이사 · 김영한

金榮煥, 한국전열화학공업(주) 대표이사.

1934년 경남에서 태어났다. 경남상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경남모직 영업부장, 한일합섬 영업이사 등을 거 쳐 1979년도에 한국전열화학공업(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86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가족으로 는 부인과 외동딸을 두고 있다.



이사 · 이석훈

李碩勳, 일신산업(주) 대표이사.

1946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 경북고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1969년에 뉴욕대학을 졸업한 뒤 일신산업(주) 뉴욕지사에서 근무하였다.

1970년에 귀국, 일신산업(주) 무역부장을 역임 하며 (주)충청일보 이사 및 청주문화방송(주)이 사로 취임했다.

1973년도부터 현재까지 일신산업(주) 대표이 사, 재단법인 문헌장학회 이사장, 학교법인 홍익 학원 이사, 청주문화방송(주)이사, 홍익개발(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1남 2녀가 있으며 운동으로는 골프를 즐기고 있다.



이사 · 김성민

金聖敏, 학교법인 국제학원(국제대학) 이사장.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동고·연세대 신 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서울대·연대·고대 대 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도에 학교법인 성한학원과 대일고등학 교, 1980년도에 은주중학교, 1982년도에 정릉여자 상업고등학교, 1983년도에 대일외국어학교를 설 립하며 육영사업에 이바지해 왔다.

태권도와의 인연은 한국태권도연맹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제15대 집행부 출범 - 프로필



이사 · 김현식

金炫植, (주)동아출판사 사장

193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95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64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1958년에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한후 대한상공회의소, 중앙맥주주식회사, 한국병유리주식회사, 대한유리공업주식회사의 요직을 역임 한후 1977년에 두산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79년 두산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1981년 두산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1985년부터 (주)동아출판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셋을 두고 있다.



감사 · 송봉섭

宋奉燮, 서울시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1940년에 출생하였다. 8단의 고단자로 1967년도에 월곡체육관을 개관한이래 지금까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중진이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1981년 제62회 전국체전때부터 1990년 제71회 전국체전까지 서울시대표선수단이 10연패의 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87년도 월드컵대회(핀란드 헬싱키)에 한국대표선수단 감독으로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거두어 국위선양에도 이바지 했다.



이사 · 김인식

金寅錫, 태권도 고단자(9단)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1926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태어나 1943년에 경성공립직업학교를 졸업했다.

1969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재직한 이래 경기분과위원장, 심사분과 위원장, 기술심의회 부의장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1989년도부터 1990년까지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으로 재직했다.



감사 · 조영기

曹泳琪,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1938년에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영광중고를 졸업했다.

태권도 8단의 고단자로 1급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다.

1982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태권도발전에 기여해왔고 1986년도부터 전남체육회 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

1990년도에는 중화대북 타이페이시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출전, 남자부 우승 및 여자부 준우승을 달성했다.

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다섯을 두고 있다. 태권

총7억8천6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국제화와 함께 다양한 국내사업펼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7일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91년도 정기대원총회를 열고 '90년도 사업 결산과 '9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91년도의 사업을 『국가 체육정책 방향인 청소년 대책과 생활체육 시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회의 환경 개선, 일선 도장의 운영 개선, 회원의 권익확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태권도의 새로운 좌표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총 예산액으로는 7억8천6백3십만원이 승인되었다. 이는 '90년도의 결산액 6억5천5백6십만원보다 약 16%증가된 것이다.

협회가 올 한해동안 추진할 부문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국 업무전산화 추진 및 시도지부 행정업무 간소화 위해 FAX기증

협회에서는 회원 서비스부문의 개선을 위해 사무국 업무전산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은 올해내에 컴퓨터를 설치, 업무 전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에 컴퓨터를 전공한 신입사원을 채용한바 있다.

한편 제도개선 부문으로 시도지부 및 3개 연맹과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능률제고를 위해 시도지부에 FAX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3월 중 시도지부별로 이미 설치에 들어가 4월부터는 완전히 문서수발신이 우편 발송 대신 FAX로 전송하게 되었다.

국내대회 총19회 개최

'90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전국대회는 총 18회에 선수 10,392명이 참가한바 있다.

'9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한차례의 대회가 증설돼 19회의 대회가 개최 된다.

이는 일반대학으로 경희대와 함께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한체육과학대학이 지난해 정규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학장기쟁탈고교태권도대회개최를 요청함으로써 대회개최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여름방학중에 제1회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대회 4회 파견

가. '91년도 월드컵대회

월드컵대회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에서 개최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남녀 각 8명씩 16명의 선수와 임원 6명 등 총 2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90월드컵 대회에는 남자 종합우승, 여자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나. 제10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세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다.

협회에서는 남녀선수 각 8명씩 16명과 임원 7명 등 총 23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다. 제2회 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

1989년도에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의 무도정신과 기술을 심어주기 위해 창설되어 매 2년마다 개최기로 한 이 대회는 올해 제 2회 대회가 7월에 미국에서 개최된다.

협회는 남녀선수 각 8명씩 16명과 임원 6명 등 총 2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라. 제3회 국제군인선수권대회

오는 가을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군인선수권대회에는 국군체육부대 대표팀이 출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9일부터 11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4회이란혁명기념태권도대회에 협회는 당초 임원4명, 선수8명 등 총12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으로 말미암아 대회에 불참했다.

'92바르셀로나올림픽 대비 강화훈련 실시

협회에서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코칭스텝으로 남자부에 주신규(서울체고 코치), 여자부 임신자(상명여대코치)씨를 선임하고 '90년도 남녀국가대표1진 16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31일까지 20일간 진해에 있는 대한체육회 훈련원에서 1차 훈련

을 가진바 있고 지난 2월 3일부터는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2차 훈련에 돌입했다.

이들은 년250일간을 진해 훈련원과 태릉선수촌에서 계속 강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강화훈련에 참가한 대표선수는 앞으로 4월24일과 25일에 실시되는 '91년도 남녀국가대표최종선발대회에서 선발되는 남녀국가대표1진으로 교체하게 된다.

'91국제대회 대표선수단도 합숙훈련 실시

한편 '91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단에 대해서는 대대회 출국전 10여일간의 강화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91년도는 협회 창립 30주년의 해 기념 사업으로 태권도 홍보만화 제작

협회는 오는 9월 16일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선도장 홍보 및 교육용 만화를 제작할 방침이다.

태권도 만화는 태권도 역사에서부터 태권도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여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태권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태권도 홍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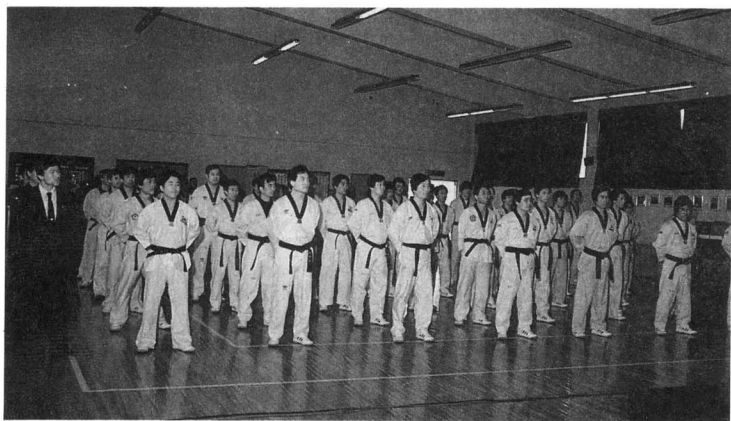
경기장 질서확립체제 마련

협회는 경기환경의 개선책으로 엄정한 판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임심판원 44명을 구성하고 1박2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경기 임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한 팀당 1명의 코치와 감독이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경기장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는 체제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ENH**

뉴스초점 - '91년도 상임심판원 세미나

“심판판정의 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
1박2일의 교육을 통해
심판원들의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공정한 판정행위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시킨 효과를
가져왔다
”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31일, 91년도 국내의 각 종대회에 투입될 상임심판원 44명을 선발(감독관 7명, 주·부심 34명)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월 18일 부터 19일까지 1박2일간 국군체육부대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90년 상임심판원제를 도입한 협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금년부터 상임심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나.

이는 연초 일상적인 심판보수교육 1회 실시후 별도의 교육없이 바로 경기장에 투입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심판판정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규칙전반에 관한 자유토론과 특정주제에 대한 분임토의 형식으로 진행 ”

협회 강원식 전무이사는 『보다 정예화 된 심판을 육성·관리함으로써 경기장내 불신과 반목을 없애는 부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최세창 심임회장은 격려사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이 태권도경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태권도 경기 발전을 위해 『심판들에 대한 상(賞)과 벌(罰)을 확대하여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 교육은 실기와 경기규칙 해석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경기규칙상의 다소 애매한 부분에 대한 심판원의 심도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했던 한 심판원은 『그간 실시된 심판보수 교육같은 단체교육은 주입식으로 진행되다보니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토의할 기회가 없었다. 소수 인원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다보니 비록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각자의 기준으로 적용하던 규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밤8시부터 각 조별 분임토의에 참가한 상임심판원들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10명씩 4개조로 편성하고 1개조에 2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한 분임토의결과는 2일차인 19일에 각 조별로 해당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표하고 전체토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별 토의주제〉

1조- ●경기장 질서 확립에 있어 심판원의 역할

●심판원의 공정한 판정방법

2조- ●금전수수설 방지 대책

●심판원의 권익보호



3조- ●우세판정의 합리적 기준

●감독관의 역할

4조- ●부심채점기(전광판)사용시 문제점과 방지책

●상임심판원 제도 운영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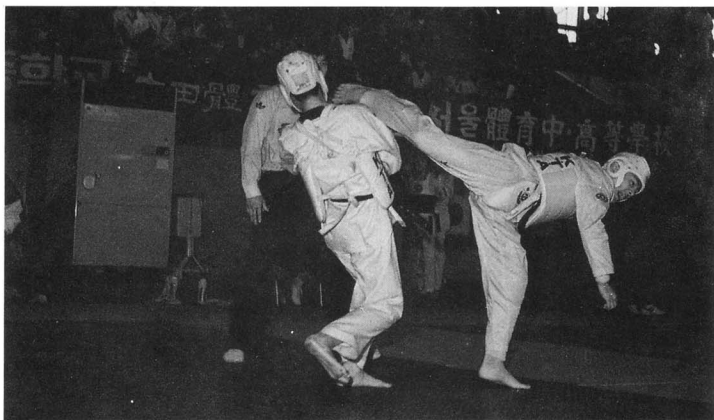
분임토의의 전체진행을 맡은 김대연 심판분과위원장은 『첫번째 세미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주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대회 전후에 별도의 회의를 갖고 계속 토론함으로써 전체 상임심판원간에 규칙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의 조그만 이견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끝으로 정신훈화에서 협회 홍종수부회장은 심판원들의 열띤 참가에 치하하고 향후 태권도 경기 발전에 심판원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오후 4시에 모든 일정을 마친 '91상임심판원 세미나는 내용에 있어 심판원들의 진지한 토론에 성과도 컸지만, 1박2일의 교육을 통해 심판원들의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공정한 판정행위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시킨 효과를 가져왔다고 협회는 평가하고 있다.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을 위해 경기규칙의 합리성이 요구되고 '보는 스포츠'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심판의 합리화를 위해 시도된 상임심판원세미나는 명량한 경기장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대한**

“국내 단일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 1743명 참가”



중등부의 열전

태권도 경기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중 가장 큰 규모인 전국종별선수권대회가 3월25일 부터 31일까지 7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참가선수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대회는 금년에도 기록을 경신, (90년도-1710명 참가) 3개부 287개팀 1743명이라는 선수가 대거 참가해 태권도인구의 저변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초 대회기간을 6일간으로 정했던 협회는 대회기간 중 갑자기 치러진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선거(26일)때문에 부득이 대회를 하루 연장해 일요일인 31일까지 치르는 등, 경기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7일간 내내 3코트로 경기를 치러야할 정도로 많은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태권도 저변에 비해 국기원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

계체실이 없어 선수들이 복도에서 옷을 벗고 줄을 서고, 출전대기를 해야 하는 실정에 각 팀 임원들은 불평을 터뜨렸지만 참가선수수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무난히 치워졌다는 게 후평(後評).

이번 대회는 실무부서인 경기·심판부에서 많은 준비를 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주었다.

경기부에서는 경희대학교와 대한체육과학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 무리

없이 진행시켰고, 심판부에서는 공정한 판정으로 물의없이 대회를 종료시켰다. 4심제를 도입해 첫 대회를 치른 심판부는 두세건의 작은 실수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지방팀에서 모두 만족할 만큼 경기장 질서 확립의 밝은 조짐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대회 개최식에는 최세창 신임 회장을 비롯해 대다수의 이사들이 참석하고 국가대표 성인 시범단과 밴드를 동원해 대회의 격을 높여 주었는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관행으로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등부, 춘추전국시대 개막

전체 99개교 577명이 참가한 중등부는 이제 전국적으로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한 느낌. 선수들의 기량 평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이번 중등부 결승전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총11체급 결승에 오른 22명의 선수는 모두 7개 시도의 19개교 소속. 아직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16명)했지만, 우승자 11명이 모두 다른 소속팀이어서 학교간의 기량차가 상당히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231:1의 경쟁, 고등부 판급

138개교 977명이 참가한 고등부에서의 압권은 판급. 231명이 출전함으로써 도대체 어느 선수가 '난 놈(?)'이 될 것인가 일간지 기자들까지 관심이 집중되었던 체급. 결국 결승전에서 상대선수를 4:1판정승으로 압도하고 231:1의 최고경쟁을 치뤘던 주인공은 경남체고 3학년 진승태 선수.

경남체고는 플라이급에서도金を 캐내 서울체고와 함께 金2개씩을 챙겨간 고등부의 강호.

고등부도 아직은 서울체고·동성·한성·성동 등 서울팀이 막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경남체고, 대전체고를 비롯한 지방 강호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중등부에 버금가는 평준화가 곧 도래할듯.

남자고등부의 유일한 여자코치

남자고등부의 격렬한 전장(戰場)에 흥일점 여자코치가 나타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이채. 주인공은 강릉에서 부군과 함께 체육관을



이례적으로 많은 이사들이 참석, 선수들을 격려했다. (재우교역 김 현우이사)

운영하는 최승옥 사범(32세·여·울지화랑체육관). 과거 '70년대 후반기 서울에서 선수생활한 경력'이 있는 최사범은 도장에서 선수부를 육성하며 중등부1명, 고등부2명, 일반부1명 등 4명의 남자 선수를 거느리고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뛰어들었는데, 최사범은 비록 이번대회에서는 모두 16강전 이하에서 실패했지만, 금년 후반기에는 강릉농고 6명의 본진(本陣)을 이끌고 서울에 진출하겠다고 기입.

화려한 데뷔, 단국대

50개팀 189명이 참가한 대학 및 일반부경기에 서 향후 대학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나타났다.

비록 신인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금메달 3개를 따낸 단국대.

소대호(페더), 김혁원(라이트), 김태광(웰터), 황몽환(페더) 등 그다지 낯설지않은 이름의 선수 7명을 거느리고 출전한 단국대의 코칭스텝은 정찬모(대전고학회회장) - 하석광(3회세계대회챔피언) 라인.

아직은 한국체대와 동아대, 경희대와 체육과학대로 삼분(三分)하는 대학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2-3년 후면 태풍의 눈으로 발전할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듯.

세종대(금2)와 군산대(금1, 은1)도 종별대회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팀이다.

기존 일반부팀에서는 서울에 있는 체육선교신학교와 부산체육선교신학교, 자매교가 출전해 이목을 끌었다.

판급의 희망체육관소속 이화진선수(금)와 페더급 창용체육관 오경환선수(은)도 대학부팀사이에서 선전을 해 경력을 급급하게 만들게 했다. **태권**

도장(道場)과 도량(道場)



강호식

경향신문 체육부 기자

사람은 누구나 갈등과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 대부분은 일정한 시기에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를 찾는다. 그렇지 못하면 정서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강박관념은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였고, 정신적인 내구력이 일천한 나이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시절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몇몇 학우들은 불펜을 손에서 놓고 담배와 술잔을 들고 좌절감을 씹곤했다. 그때 정신적인 도움을 주신 인생의 스승을 나는 고즈넉한 안국사(安國寺)에서 만났다. 이름을 끝내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나는 그분을 마음 속의 스승으로 모시며 대학을 마치고 오늘에 이르고있다.

대전에서 영동을 거쳐 무주에 다다르면 구천동으로가는 인파가 언제나 북적댄다. 그 소란함을 뒤로하고 전주행 완행버스에 올라 20여분을 터덜거리고 나면 서창입구라는, 표지판도 없이 그저 차장과 거주민들만 아는 정거장이 있는데 당시 30원쯤되는 차비가 아깝지 않은 거리였다. 버스가 떠난뒤 비포장도로의 먼지바람이 가시면 10여가구가 모여사는 마을길로 접어들다.

이미 학교일이나 숙제, 대학과 참고서같은 따위의 일상에서는 벗어났고 옆에서 찰랑거리는 물통

을 잡고 장승을 지나다.

마을을 지나 두구비를 돌면 붉은치마를 두른듯한 절벽이 가로막는다. 적상산(赤裳山)이다. 물론한모금씩 마시며 3시간정도 숲속길을 제치며 하체훈련을 하다보면 머리꼭지에서 더운김이 오르고 어느새 나도 능선에 오른다.

덕유산봉치의 한쪽 귀퉁이에 가장 험난한 산. 그 능선에 서서 바람 한줄기를 맞으며 피우는 담배맛이 황홀하다. 그 산중에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없었으니까. 분지로 형성된 정상바닥에 있는 절이 안국사(安國寺)다. 고려때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며 지은절이 본당만 남아있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은 조선때 지었다. 또다른 한켠에 방 두개가 있어 머리가 긴 사람들이 서너명 있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고시준비생이었던 것같다. 사천왕상(四天王像)도 없는 절이라 다소 어설퍼보였지만 법당문 고리를 잡아당기면서부터 또다시 나는 압도당했다. 깎아지른 절벽을 볼때만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 규모와 세월, 묵묵히 이슬과 바람을 맞으며 천년을 지켜온 그 문고리에서 손을 떼기가 싫었다. 예불(禮佛)을 올리고 목탁을 잡으면서 나도 「천연인(天人)」이 되었다. 나무관세음(南無觀世音)…….

새하얀 절밥을 한그릇 비운뒤 수정같은 시냇물로 먼지를 씻고나니 산중이 이른 밤이었다. 새벽예불을 위해 일찍자리에 들어 눈을 감자마자 잠이드는듯 했는데 법당 앞에서 도량송(道場頌)을 하는 스님의 낭랑한 예불소리가 들렸다. 새벽3시 비수같은 겨울바람이 옷속으로 파고들어 잠을 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때 나는 극락(極樂)을 보았다. 짙은 코발트빛의 새벽하늘에 송송 박혀있는 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달도 없고 등불도 없는 그 새벽을 별들이 밝혀주고 있었다. 마음이 더럽혀진 탓으로 저 별들이 보이지 않았었던가. 아까 낮에 오른만큼 하늘이 가까와져서일까. 허벅지까지 얼어붙는 추위에도 내 가슴은 놀람과 흥분으로 쿵쿵거리고 있었다. 수없이 염불을 중얼거리며 머릿속엔 온통 별빛만 반짝거릴 뿐이었다. 도場을 왜 도량이라고 부르는지 불가(佛家)의 가르침을 일일이 따질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닦는 도장이 라고 여기면 될듯 싶었다. 아침을 먹고 외적의 침입

“

도장이건 도량이건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의 터임에는 다름이 없다

”

때 실록을 보관하던 이조사대사고(李朝四大史庫)의 하나인 안념대(安念臺)를 찾았다. 아래서보면 깎아놓은 절벽의 한끝에 파여진 천연의 동굴이었고 플래시를 비추자 두어평(坪)남짓한 공간이 조선사(朝鮮史)를 담았던 전주사고(全州史庫)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둠이었다. 최소한의 공간과 영원의 시간이 공존하는 그 동굴의 어둠이 어쩐지 섬뜩하기도 했다. 절문을 나설때 주지스님이 일러주신대로 호국사(護國寺)터를 찾아보았다. 애초에 안국(安國)-호국(護國) 두 사찰을 지었으니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했다하여 돌보지않아 폐허가된 절터였다. 그터에 다가섰을때 나는 기괴한 장면을 보았다. 옷통을 벗어붙인 한 스님이 도끼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춤차락에 굽적한 나무줄기들이 몽땅몽땅 잘려나가고 있었고 한바탕 춤사위가 끝나자 숲속엔 공터가 생겼다. 쭈뼛거리며 다가가 나에게 그 스님은 이름을 묻는데선 주먹을 쥐어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주먹으로 무엇을 격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벽돌 두장이라는 대답을 들은 그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그러면 그 주먹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할말이 생각나지않아 물끄러미 나무등걸만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그 스님은 모두가 마음에 있는 것이라며 주먹은 물론 손과 발, 오감(五感)기관과 의식가지도 마음의 흐름을 구현하기위한 것들이라고 타이르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도 마음을 담고있는 그릇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두고 어느때엔가 그릇을 비울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어려운 말을 했다. 허둥지둥 안국사(安國寺) 법당에 돌아온 나는 주지스님을 붙잡고 그 스님과 만난 이야기를 했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스님은 법명(法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폐허가된 호국사(護國寺)에 토굴을 짓고 참선(參禪)을 하며 정진(精進)을 하는 중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법당이던 산중의 폐허에 지은 토굴이건 「똑같은 道場(도장)」이라고 말했다. 도장이건 도

량이건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의 터임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산을 내려오는 발길은 가볍고 경쾌했다. 어느것 하나 아님답지 않는 것이 없었다. 순전히 기분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모두가 마음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더욱 유쾌한 기분이었다.

내 두손에 마음을, 우주를 담아 보자. 그리고 그릇을 맑고 깨끗하게 닦자.

그후로 나는 참고서를 붙잡고 끙끙대던 시간을 똑잘라 학교앞에 있는 도장에서 백을 차고 주먹을 내질렀다. 불경(佛經)을 보느라고 옥편을 뒤적이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모든 것을 해소」라는 이야기는 잘리워진 나 못가지 만큼이나 생명력도 실덕력도 없었다.

그리고 신체를 수련하는 일이 마음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체득했다고 급우들에게 주장하기도 했다.

모든게 극복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우겼다. 그말에 대한 국신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폐허 속의 숲에서 만난 그 스님을 떠올리고 했다. 기다려지기도 했다. 인연(因緣)이 있으면 만날거라는 희망보다는 반드시 마주칠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를 기다리면서보낸 12년. 파란까까머리의 고교생이 30대초의 사회인이 되었다. 고교때의 진학부담과 대학시절의 현실인식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 취업과정에서의 혼란등을 겪으면서도 나는 두개의 버팀목이 있어 건강하게 모두를 극복했다. 불심(佛心)과 태권도(跆拳道). 두개의 지팡이는 나를 큰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질책하며 내 삶속에 들어와 두개의 기둥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 두기둥은 최소한 내가 그 스님을 다시 만나 「그릇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는 내 삶의 영역을 떠나지 않을것 같다. **태권**

· 강호식

'60년 대전에서 출생해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태권도 2단. 「스포츠서울」기자로 일했으며 '90년도에 경향신문으로 옮겼다.

박재욱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비록 시범종목이긴 하지만 '92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태권도경기의 성공적 개최가 장차 정식종목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올림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재욱 차장은 '92올림픽의 태권도경기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92올림픽대회는 '92년7월25일 부터 8월9일까지 16일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에서 개최된다.

남녀 각 64명, 전체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될 태권도경기는 바르셀로나시(市) '블라우 그라나' 경기장에서 8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지난 '90월드컵대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스페인은 대회 조직·운영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

『경기장 시설은 훌륭한 반면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 조직위원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운영 면에서도 회장 혼자 일을 처리하다보니 실무차원에서 다소 못

따르는 점도 있고……. 오는 4월말에 있을 각 종목 IF(세계연맹)와 조직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정된 경기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심판으로 엄선하고 각종 대회에 앞서 계속적인 심판교육을 통해 개정 규칙에 대한 개념을 통일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권

▼'92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장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 “고교때 입던 도복 아직도
소중히 간직”-
한화제약 김남학 사장
- “태권도 지도 통해 보람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냈다”-
전3군사령부 태권도 심사위원장
안영규 소령



김남학씨



안영규씨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고교때 입던 도복 아직도 소중히 간직”

한화제약 김남학사장(4단)



■ 김남학

- 1947년생(45세)
- 강원도 주문진 출생
- 원주고 · 고려대학교
독문과 졸업
- 현재 한화제약 사장

품새대회에 전국1위

고교시절에 입었던 태권도복을 30여년 동안 간직해오며 회사경영이 어려울때마다 무도인으로서의 「정신력」으로 역경을 헤쳐온 태권도인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원 원주교고 1년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 이듬해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전국승단심사대회에서 정확하고 빼어난 품새로 전국 1위를 차지한 한화제약 김남학사장(45).

김사장은 원주교고를 졸업한뒤 고려대에 입학해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 두어차례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4단의 실력을 쌓았다.

도복은 태권도 정신력의 산물

그러나 대학졸업후 군생활을 제외하고는 태권도복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빛바랜 낡은 도복은 가장 소중한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

『태권도를 하면서 흘린 땀이 촘촘이 배여있고 극기와 인내의 상징물인 도복은 저의 정신적인 유산과도 같습니다.』

도복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김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김사장은 태권도를 연마하면서 배운것이라면 바로 「정신력」



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대학을 졸업한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 좌절과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를 통해 배운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사장은 그 정신력의 산물인 도복을 이날까지 고이 모시고(?)있고 옛날 태권도부원들과의 유대관계도 계속 맺어오고 있다.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 넘치는 태권도 동문

고려대 태권도부 동문인 그는 후배들의 정기승단 대회때도 빠짐없이 참가하는가 하면 멀리 외국에 나가있는 사범들과도 연락을 취하고있다.

태권도인의 결집력에 대해 김사장은 『어느 씨클보다도 무도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선후배간

의 위계질서가 엄격한만큼 인정도 돈독하다』며 『졸업후에도 변함없이 모임이 잘 이뤄지는 곳은 태권도부 뿐』이라고 자랑했다.

태권도, 진정한 「무도」로 남아있길 기대

그래서 그는 태권도가 상업적인 도장으로 대중화되는 것보다는 진정한 「무도」로 남아있기를 고집한다.

그가 지금까지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해온 것은 태권도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정신이었고 무도정신에 바탕을 두지않은 태권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사장은 또 『태권도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다. 전국의 각계각층에 흩어져있는 태권도인을 파악해 이들을 활용한다면 태권도발전에 지대

▼직원들과 테니스를 즐겨치는 김남학 사장.

매년 테니스대회도 개최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함께 땀흘리는 운동통해 노사간 일체감 조성

매일 아침 테니스로 하루를 시작하며 현재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사장은 회사경영에도 같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해 노사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에는 2백50여 사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이 마련되어 있

음은 물론 주말에는 전직원들이 테니스·배구·볼링·배드민턴 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노사간의 화합 뿐만 아니라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사원들의 복지후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녀에게 대학학자금까지 전액 지원할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부여, 직원인으로서 정체되지않고 재충전을 하게 함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살아오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삶은 결코 혼자 살수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지않고는 모두가 파멸할 뿐이지요.

회사의 규모가 좀더 커지면 사원들의 복지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라고 김사장은 조용히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대에서 김사장과 같이 무도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있는한 우리 사회는 밝은 내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진**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태권도 지도 통해 보람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냈다”

전 3군사령부 태권도 심사위원장 안영규 소령



■ 안영규

- 부산출생
- 42세(5단)
- 육군3사관학교 졸업
- '71년 7월 16일 소위 임관
- '91년 3월 30일 소령 예편
- 현재 신창기업 사장

태권도에 관한 「병과없는 전문가」 대우받아

역삼동에 자리잡은 아담한 사무옥 1층에 들어서면 대역섯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다. 한쪽 사무실에는 샘플인 듯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사무실 분위기를 정답게 장식하고 있다.

「신창기업」은 지난 3월 30일로 퇴역한 3군사령부 태권도 심사위원장 안영규소령이 제대후의 사업을 구상, 2년전에 설립한 무역회사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은 어느부대에서 어떻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고 어느 부대에서 태권도 승단심사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1971년도에 소위로 임관한 이래 만20년간을 군인으로 보낸 안영규 소령은 태권도에 관한 「병과없는 전문가」로 통할만큼 3군사령부의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탁월히 수행해왔다.

태권도와 함께한 20년간의 군대생활

안소령의 군대시절은 태권도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때 태권도를 배우기 시



작, 육군3사관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이미 유단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소령은 생도시절에 교관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해 이후 10년간을 3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서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

『장교 양성과정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상무정신입니다. 즉 군인에게는 유사시 적과 생사를 건 전투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르는 기본이 태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생도라면 누구든 유단자가 되도록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3사관학교에서의 태권도 지도이후에도 야전부대에서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체력



과 정신력을 기르도록 했고 지난 '87년부터 3군사령부로 자리를 옮겨서는 ○○여만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해오면서 전 장병의 유단자화에 힘써왔다.

유단자율이 높은 부대일수록 사고율 적어

3군사령부에는 ○여명의 태권도지도심사위원이 구성되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데 안소령은 그중에서도 심사위원장으로 지난 4년 2개월간 태권도를 지도해 왔다.

『장병들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내력, 정신집중력, 극기력, 복종심, 단결력 등을 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단자가 됨으로써 맛보는 성취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는 가운데 진정한 전우애를

▼군대를 떠나 이전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인으로서 몸담아야 할 사무실 앞에 선 안영규씨.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누구든 군대를 가기만 하면 필수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군대의 태권도 교육은 단순한 전력보강의 차원으로 인식되기 쉽다. 또한 태권도 기술면에서도 군대에서의 태권도 수련은 일선 도장에서의 수련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대에서 태권도의 지도는 기술 하나 하나의 세련미 보다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신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통해 젊은이의 정신을 재무장시킨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군대에서 “정신혁명의 기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재무장된 군인들에게서 눈에 띄이는 효과로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유단자 확보율이 높은 부대 일수록 사고율이 적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현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차량사고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태권도를 통한 순발력 뿐만 아니라 무도정신 교육으로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익힌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불안, 우울, 소외감 등으로부터 자살 또는



자해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태권도가 가져다주는 무도정신 함양은 군인들에게 보다 보람차고 가치있는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태권도를 지도한 이유는...

이렇게 군인들에게 태권도 지도의 중요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안소령은 여기에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3년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사회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군대시절에 체험하고 깨달은 태권도정신은 바로 자신을 지키고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힘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군인 한사람 한사람의 태권도 수련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국력을 증가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믿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태권도지도에 『사력을 다했다』는 것.

『태권도는 제게 보람과 즐거움으로 군대생활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군대생활을 마감하는 안소령은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사회 초년생이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무도정신을 강조했듯이 무도정신을 갖 고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족으로 노모와 부인,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 안소령은 군에 있을동안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적었다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먼저 되어야겠다.』고 말을 맺었다. **태권도**

태권도 소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최세창회장.

대한태권도협회

1991년도 제1차 이사회

2월 1일 육군회관에서 22명의 이사와 감사 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지난 1월 17일 최세창 광업진흥공사사장이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신집행부가 탄생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임원상견례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세창회장은 신임이사들에게 태권도가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의안건 심의에서는 강원식 전무이사를 유임시켰다.

강원식전무이사는 이사들에게 협회 현황 및 '91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전국심판보수교육에 333명 참가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2일간 1, 2, 3급 심판 및 감독, 코치를 대상으로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총333명의 수강자들이 참가,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다.

전국심판강습회 총250명 참가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가원에서 1, 2, 3급 심판강습회를 실시했다.

7급이상자로 2급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는 1급에는 24명, 6단 이상자로서 3급심판자격을 갖고 있는 2급에는 32명, 사범자격증 소지자가 참가한 3급에는 194명 등 총250명이 참가했다.

수강자들은 주로 지난해 3월

부터 개정 시행된 경기규정 및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심판 수신호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기 및 필기시험을 치루었다.

합격자발표는 4월말경에 있을 예정이다.

기술심의회(의장 김인석) 임원 임명장 수여식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24일 신집행부구성과 함께 기술심의회위원장 및 11개분과위원장 회 부위원장이상 임원을 임명하는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기술심의회 11개분과위원을 임명했다.

태권도협회의 '91년도 각종 사업의 실행업무를 수행하게될 기술심의회는 경기장 질서확립과 생활체육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5명의 주요 간부 임원 중 7명을 승격하고 17명을 신입 임원으로 보강하여 면모를 일신했다.

협회는 지난 1월 31일(목) 올림피아관1층 중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상임심판원 44명 임명 1박2일 세미나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3월 18일자로 전국의 4천5백여 심판자격소지자 중 44명의 상임심판원을 임명하고 1박2일의 교육을 실시했다.

'90년도부터 경기장내 판정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상임심판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심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난 3월 18일

1991년도 기술심의회 임원 명단

- 의 장 : 김 인 석
- 부 의 장 : 이영근, 안영택, 김경지
- 자문위원 : 이용우, 이교윤
- 지도위원 : 박해만, 전용하, 김영삼, 이승국, 이규정, 김영작

소 속	직 책	성 명	위 원
기 획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이 태 명	이병직, 박형철, 김경섭
		김 강 인	안정희, 김호섭, 오만섭
		김 대 용	최유신, 임태택, 이완희
경 기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고 칠 성	박형원, 최주수, 황성수
		김 기 용	윤치성, 나찬용, 김갑식
		김 영 철	김성배, 이태환, 김동임
심 판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김 대 연	오수근, 최복현, 장세백
		김 용 길	이한현, 엄영섭, 장광영
		심 명 구	강석환, 김성철, 오진근
심 사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박 덕 규	이상근, 박규남, 홍종배
		한 상 진	이현호, 김상익, 정광필
		이 백 운	배석출, 설동엽, 김동수
상 별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배 성 실	유상철, 이규섭, 박홍래
		오 함 숙	김석태, 현석주, 김동환
		김 춘 근	배희동, 강성철, 양천석
경기력강화분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박 창 덕	황영길, 김세혁, 유수철
		진 중 의	주신규, 김영희, 전정우
		손 천 택	이재봉, 장용규, 김인식
국 제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박 현 섭	민병인, 김상근, 박종효
		서 경 무	이문희, 임창배, 장득용
		유 문 규	김철민, 남승현, 오인길
연 구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최 영 렬	문원재, 이은송, 조광민
		김 군 수	김인식, 나봉순, 성낙준
		김 석 련	김영선, 윤한돈, 장이식
홍 보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조 호 철	박노필, 홍성남, 윤동섭
		김 화 룡	권혁중, 정연주, 김진태
		조 성 봉	배지영, 김택수, 이용우
여 성 분 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장 정 남	정효성, 박정옥, 안연순
		최 종 숙	김영옥, 서영애, 지영숙
		박 필 순	최승숙, 김숙자, 양인옥
생활 체육 분과	위 원 장 부 위원장	양 영 모	심재권, 강승길, 손영덕
		나 동 식	이동수, 김갑열, 이기현
		임 중 민	정종래, 최성록, 진장환

태권도 소식

과 19일 '국군체육부대에서 합숙 훈련을 실시했다.

상임심판원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91전국종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올해에 실시될 전국 대회에 투입될 예정 이다.

'91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

시도지부와 연맹의 추천을 받아 매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즈음 하며 시상하는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이 1월31일 올림픽 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태권도의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표창수여식에서 최세창회장은 우수도장상, 지도상, 경기상 등 3개부문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명예홍장을 수여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증산체육관의 라동식사범등 17명에게 수여된 우수도장상은 각 시도지부에서 태권도의 생활 체육유공자로서 성공적인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에게 수여되었고 송곡고의 이재봉코치 등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일선지도

자 18명에게 지도상, '90년도 국내외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장혁선수(한국체대) 등 18명에게 경기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수상자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우수선수 50명에게 총3백6십만원의 장학금 지급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해 국내외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선수50명에게 총 3백6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별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국민학교부 10명 각 4만원, 중학교부 10명 각 6만원, 고등학교부 20명 각 8만원, 대학교부 10명 각 10만원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31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각 부별 대표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코칭스텝 선임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4



최세창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장학생들.

일 올림픽회관 14층에서 기술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92년 올림픽대회, '91년 월드컵대회,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수단 코칭스텝을 선임했다.

▲'92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 남자부 코치: 주신규(서울체고코치 '86아시안게임코치)
- 여자부 코치: 임신자(상명여대코치, '89 제3회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레이너)

▲'91년도 월드컵대회

- 남자부 코치: 김현성(성동고코치)
- 여자부 코치: 김영수(문성여상코치)
- 남자부 트레이너: 박계희(관동대코치)
- 여자부 트레이너: 이인재(성신여대코치)
- ▲ 제10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 남자부 코치: 윤창옥(한성고교사)
- 여자부 코치: 이홍규(부산남여상 교사)
- 남자부 트레이너: 김영국(경남체고코치)
- 여자부 트레이너: 양기모(인천체고교사)

시도지부및연맹에 FAX설치

대한태권도협회는 제도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15개시도지부 및 3개연맹의 행정업무간소화를 통한 능률제고를 위하여 FAX를 설치토록했다.

협회, 도장보험 가입 관련 체육부령 개정추진

'91년 5월중 개정될 예정

현재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의 불만 대상이 되고있는 「체육시설업자 보험가입의무조항」(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2조)이 금년 5월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 태권도협회는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체육 시설업자 보험」이 태권도장 경영 현실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 '90년말부터 이의 개정을 체육청소년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협회는 현재 이 규칙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에 태권도장(체육도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부의 담당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한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 5월 중 체육부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3월부터는 문서수발신이 우편업무대신 FAX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도지부 및 연맹의 FAX번호는 다음과 같다.

(FAX번호)

서울: 02-214-8320
부산: 051-255-1303
대구: 053-352-5692
인천: 032-885-8894
광주: 062-361-5351
대전: 042-257-2952
경기: 0331-42-9535
강원: 0361-51-3579
충북: 0431-56-4098
충남: 0452-935-0880
전북: 0652-75-5466
전남: 062-675-3977
경북: 053-33-3615
경남: 0551-97-4642
제주: 064-53-3195
대학: 02-543-4102
중고: 02-563-3088



국제대회 유공자 48명 체육포장 수상
('90.12.29. 훈포장 수여식)

지난 12월 29일 역도경기장에서 '89년도에 실시된 국제대회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이 거행돼 태권도 유공자 47명이 체육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이날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전수받은 태권도인은 89년도에 실시

태권도 소식

된 제9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89년도 월드컵대회, 제3회 월드
게임 입상자 및 유공자이다.
(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장혁 우수선수상, 김현수
지도상 수상
(’91년도 대한체육회 표창식)

한체대의 장혁선수와 전남협
회 경기이사인 김현수씨가 2월
27일 오전 10시에 올림픽회관 1
층 대회의실에서 거행한 1991년
도 대한체육회 표창식에서 각각
우수선수상과 지도상을 차지했
다.

장혁선수는 한체대 2학년 재
학시에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
어 제9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해 제71회 전국체육
대회 태권도경기 대학부 1위 및
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최우수선
수로 선발된 바 있다.

한편 지도상을 수상한 김현수
씨는 지난 10여년간 전남협회
경기이사로 재임하면서 지역사
회 태권도 보급 및 저변확대 뿐
만 아니라 선수육성에 기여해
왔다.

장혁선수 약력
△한체대 4년
△1969년 10월 3일생
△’90년도 경기실적

4.27 ’90년도 한국대표선수선
발대회(최종)페더급 3위

6.22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단
체대항대회(대학부)라이트급 1
위

11.9 ’90년도 전국남녀우수선
수선발대회 페더급 1위

김현수씨 약력
△1944년 3월 17일생
△전남 조성중학교교사
△전남태권도협회 경기이사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 졸
업생 13명에게 표창장 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미동국
교 어린이 시범단으로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 졸업생 1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은 88
년에 개최된 제24회서울올림픽
대회 개회식 식후공개행사 및
'89년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회식행사에서 태권도 시
범을 보임은 물론 국기원에서
많은 외국의 귀빈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인바 있다.

수상자 명단

김영훈 박우철 유병주 임현우
심범석 김영식 김동현 안용관
임대환 나병일 정훈규 이성희
간정미

할렐루야 태권도시범단 홍콩에서 시범

체육선교를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는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은 1월27일부터 2
월 10일까지 14명의 시범단을
홍콩에 파견, 시범을 보였다.

시범단은 이중덕, 정중훈, 강
병덕, 구태회, 강민형, 고영환,
한동훈, 이 현, 이상국, 이승춘,
이양희, 김영진, 이성진, 강성훈
으로 구성되었다.

체육부대, 태권도교실 운영
'90년 1월부터 군자녀 대상

국군체육부대(태권도부 감독 황영갑)는 생활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90년 1월 22일부터 「상무태권도교실」을 개설해 군 자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황감독을 비롯한 선수전원이 일과후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1시간 반동안 매주 5일씩 교육을 하고 있다.

체육부대와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장기복무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무태권도교실」은 태권도교육 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수영 등을 프로그래밍에 삽입,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또 매주 2회씩 체력측정(100m, 50m, 넓이뛰기, 왕복달리기 등)을 하여 전반적인 체력향상에 목적을 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있다.

체육부대 황감독은 『예의범절교육과 태권도 정신의 함양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1년동안 100여명(유치부포함)의 수련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3월22일 30여명 수련생이 단(품)심사에 응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승단심사에 참가한 어린이들(3. 22, 국기원)

인사발령

총무담당 박성욱씨
서무담당 최성주씨 입사

대한태권도협회는 '90년 12월 19일부로 전임 양인옥씨의 후임에 서무를 담당할 최성주씨를 채용한데 이어 업무전산화 추진을 앞두고 컴퓨터를 전공한 박성욱씨를 '91년 2월11일부로 총무담당에 임명하였다.



박성욱씨

총무담당 박성욱
▲1968년 경북 출생
▲1988.2. 대유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과 졸업

서무담당 최성주
▲1972년 서울 출생
▲1991.2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최성주씨

서울시협회

지방자치 기초 의회 의원
6명 당선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서울시내 태권도 사범들 중 5명이 당선되어 태권도인의 성숙된 자치의식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한다.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태권도 사회를 대표하는 참다운 공복으로 지방자치와 민주 발전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의회 의원 당선 사범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초의회의의원)

- 성동구 중곡2동
박 원식 사범(중곡체육관)
- 구로구 신도림동
최 재무 사범(백호체육관)
- 은평구 갈현2동
임 동균 사범(서부 체육관)
- 은평구 신사2동
이 채칠 사범(전진 체육관)
- 양천구 신월7동
이 운재 사범(신 청용 체육관)
- 동작구 사당동
최 흥섭 사범(이수 체육관)

제11회 서울시 교육감기
초·중·고 대회 신우국교·
경수중·리라공고 우승

지난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각부 69개팀 306명

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바뀐 심판 수신호를 적용하여 첫번째 대회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위촉된 심판 전원이 사명감을 갖고 개정된 수신호를 잘 숙지하여 경기 운영을 공평 무사하고 원만하게 진행,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경기는 국교부·중등부·고등부 개인전 및 각 부 단체전으로 치루었고 부별단체전 입상 전적은 국교부 1위 신우국교·2위 거여국교·3위 강덕국교·중등부 1위 경수중·2위 한성중·3위 배명중·고등부 1위 리라공고·2위 동성고·3위 광영고가 영광을 차지하였다.

상조회 기금, 지급 범위 확대
부모 회갑연·고회연에도

지난 87년 1월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상조회 기금이 90년 회계년도까지 2억 2천여만원이 적립되었다.

그동안 서울시내 태권도 체육관 사범들의 경조사에 일조를 해오면서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친목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 칠순연과 회갑연에도 일정액의 축의금을 전달하기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신도림 국민학교 시범단
이태리 순회 시범대회

이태리 (로마) 박 영길 사범의 초청으로 지난 겨울방학기간 중인 1월 20일부터 30일 (10일간)까지 신도림 국교 5·6학년

태권도 소식

생 18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서울시 대표 시범단 (지도 사범 최 재무) 일행이 로마·나폴리를 방문, 품새·격파·겨루기 시범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면서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돌아왔다.

최 재무 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사범단은 지난 81년도에 창단되어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시범을 해왔는데 해외 원정은 이번이 다섯번째.

그동안 주로 동남아 (홍콩·마카오·대만·필리핀) 무대에서 시범을 보여 왔지만 유럽 원정 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로마와 나폴리에서의 시범은 그 곳 국영 3텔레비전에서 녹화 방송을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모아 선수들이 몇시간동안 사인을 해 주느라고 진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초청한 박영길 사범도 "이태리에 한국 사범들이 20여년전에 진출하여 성인 태권도가 이미 뿌리를 내렸지만 이번 어린이들의 시범으로 청소년 태권도 인구가 늘어나게 됐다"고 시범단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신도림국교 시범단

대구직할시협회

신임 전무이사에 정우득씨
감사에 조동희·박팔근씨
선출

대구직할시협회는 전임 김영곤 전무이사(화랑체육관 관장)가 사임함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로 정우득 승일체육관 관장이 신임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한편 대구직할시협회는 지난 1월 24일(목) 오전 11시 궁전식당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신임감사로 조동희대의원(대호체육관 관장)과 박팔근대의원(팔팔체육관 관장)을 선출했다.

〈대구 김영곤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
인천협회방문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회장은 2월21일 상오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회장·한재수)를 방문, 사업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최세창회장, 인천협회 방문.

홍종수부회장, 강원식전무이사와 함께 인천을 방문한 최회장은 이날 인천직할시협회 회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국기인 태권도가 좀더 국제적스포츠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협회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시·도협회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2월 승품단심사에 858명
합격

인천협회는 2월24일 승품·단심사대회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이날 심사에는 한재수협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참관하였다.

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수련을 통해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는 총 858명이 합격했다.

품단별 합격자는 1품-518명, 2품-169명, 3품-45명, 1단-160명, 2단-38명, 3단-18명 등이 영예의 합격을 판정받았다.

인천직할시협회편집위원으로

태권도 소식

활동하고 있는 이일구(32·인천 협회상벌분과위원장·희망체육관)사범은 지난 2월1일 경인매 일신문사에 입사, 현재 인천시청을 출입하고 있다.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직할시협회

품새 및 심판보수교육 실시

광주직할시협회는 지난 1,2월 중에 협회에 소속된 체육관을 순회하며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지도를 한데 이어 체육관 관장 및 3단 이상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무등경기장내 훈련장에서 품새 및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사무실 이전

광주시협회는 지난 3월 31일 협회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3동 407-8호
(88서울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內)

▲전화 : 062-361-6350

▲팩시 : 062-361-5351

〈광주 윤웅석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협회는 1월 21일 협회 사무국에서 재적대의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 '90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서와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임기 만료된 신임감사의 선출이 있었는데 허용, 박희준 감사가 유임되었다.

23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기도협회는 82년도부터 9년 동안 장학금을 적립해온 결과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2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실을 맺었다.

장학생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인사를 중심으로 대학부 10명에게 40만원씩, 고등부 10명에게 각 20만원씩, 일반부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3명에게 7백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협회 총회 모습.

■ 대학부

경희대 5명(윤정옥, 공두환, 장철, 박세진, 권태호), 대한체육과학대학 2명(송준호, 남학현), 경기대 3명(이제범, 한종일, 허정호)

■ 고등부

풍생고 4명(윤종일, 김병욱, 진중석, 김홍식), 정명고 2명(지광현, 정해성), 송림고 2명(이무현, 이규희), 강화고 (정우용), 문산중고 (이진숙)

■ 일반부

김진기, 윤순철, 노신

성남 풍생고 유럽6개국과 친선경기

성남 풍생고 태권도팀(임원4, 선수9명)은 2월 6일 출국, 유럽 7개국과 친선경기를 갖고 3월 3일 귀국했다.

풍생고팀은 영국, 덴마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충청북도협회

전종윤회장 이사회 임원 부부초청 신년만찬회 개최

충북태권도협회 전종윤회장은 지난 1월5일 이사회 임원 부부를 초청하여 보령회관에서 신년 만찬회를 가졌다.

이는 신년 인사와 함께 90년도에 개최된 제71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종합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준 각 이사 및 임원들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이사는 친목을 다지는 한편 앞으로 충북 태권도가 더욱 더 발전하도록 다같이 힘쓰자라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심판 보수교육 실시

도내 심판원들의 자질향상과 태권도 경기시 보다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원 전원과 각 관학교 지도교사, 체육관장 및 사범 기타 희망자에 한하여 지난 3월31일 협회체육관에서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판보수교육 강사로는 지난 2월에 국기원에서 실시된 전국 심판강습회에서 심판원 강습을 받은바 있는 충청북도협회 심판위원장 박정규사범과, 경기 위원장 이철재 사범이 맡았다.

충북체고 설립—금년3월

충청북도에도 공립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됐다. 충북은그간 별도의 체육고등학교가 없어 금천고에서 각 종목 체육특기자를 1개반으로 구성, 육성해 왔으나 금년 3월 6개반 7개종목(태권도 선수 30명)으로 충북체고(교장 손건수)를 설립하였다.

▲감독 : 김영돈(교사)

▲코치 : 지용석

▲주소 : 충북 청주시 금천동 15-4번지

▲전화 0431-221-4014

<충북 박한구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충남체고에 태권도부 창단

'90년 3월 설립된 충남체육고등학교(공립·교장 김진창)에 금년 3월부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89년 1월 대전직할시와 분리되며 경기력이 약화된 충남은, 12명의 선수로 창단한 충남체고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감독 : 정해준(교사)

▲주소 : 충남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555번지

▲전화 : 0461-735-2831

<충남 서인원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임형연회장.

정기총회개최

전남협회는 '90년 12월 22일 전남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90년도의 사업을 결산하고 '91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토의안건중 도장 등록규정(개정)의 건에서는 부실도장정리와 도장현황과약을 위하여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을 실시할 것과 구비서류에 심판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감사선출에서는 이정남, 김이

태권도 소식

현감사가 유임되었고, 임원 선출에서는 이영안(영암군 대의원)씨가 신임이사로 보선되었다.

한편 총회를 마친후 “전남태권도인의 밤”행사가 약 300여명의 내외 귀빈과 태권도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협회 발전에 공이 큰 인사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겸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장상에 김영일·김경호 이사, 국기원원장상에 영광군 서재관군수와 동광양지회장 장귀성씨, 전남협회장상을 여수고배병수교사, 특별공로패 수상엔 여수고, 보성고, 나주체육관, 약산체육관이 차지했고 심판원 손혜옥, 장환, 양희락씨가 각각 공로패를 수상했다.

심판보수교육실시

3월 16일과 17일 오전 10시부터 1·2·3급 심판보수교육 및 품새보수교육을 실시했는데 170명이 참가했다.

소련에서 태권도 시범

소련 레닌그라드시에서 개최된 국제 유도대회(2.26~28) 개최식 직전행사에서 태권도가 시범을 보였다. 시범단은 소련 레닌그라드시 스포츠위원회의 초청으로 전남협회 최경량이사가 감독으로, 최귀익씨가 심판으로, 전수옥씨가 선수로 다녀왔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신임회장엔 김기산씨 취임
감사에 박해봉·박순복씨

경상북도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임 김경화회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회장으로 김기산 한영종합건설 회장을 선출했다.

전임 김경화회장과 신임 김기산회장의 이취임식은 지난 3월 2일(토) 오후2시에 경북체육회 2층강당에서 많은 내빈과 태권도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감사 선출이 있었는데 전임 박해봉 포항시 부회장은 유임되고 신임 감사로 박순복 청도군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김기산 회장 약력

- ▲1927년 10월 21일생
- ▲1942년 2월 사립 진도학교 졸업
- ▲현재 한영종합건설(주)대표이사
겸 회장·송산기업(주)회장
송산개발(주)회장

〈경북 신응우 편집위원〉

제주도협회

대의원총회개최

제주도협회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로얄호텔에서 24명의 대의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및 결산을 심의하고 올해의 사업과 수지에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진춘배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찬조금에 대한 감사결과에 이의가 제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운용 IOC 집행위원 · 세계연맹총재 제주도협회 방문

김운용 IOC 집행위원 겸 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 지난 1월 30일 대한태권도협회 홍종수부회장, 강원식전무이사 및 국기원 엄운규부원장과 함께 제주도협회를 방문했다.

김운용총재는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방태권도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했다.

〈제주 정한수 편집위원〉

대학연맹

신임회장에게 이정길씨 선출

이정길 임정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1월 7일 열린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총회에서 제8대 회



장에 선출되었다.

이정길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으로 재임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대학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력 향상과 팀장단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길회장 약력

- ▲1941년 5월 25일생
-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90.1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
- ▲1990.4 제2회세계대학선수권대회 여자팀 감독(우승)
- ▲현재(주)임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무실 확장 이전



신임회장의 취임과 함께 대학연맹은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월 3일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현판식에는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태권도 관계임원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주 소 : 서초구 잠원동 8-11호(청하빌딩 202호)

▲전 화 : 545-4707

▲FAX : 543-4102

중고연맹

신임 부회장에 장준웅, 성정웅씨 선출

중고연맹을 지난 1월 26일 중고연맹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으로 장준웅 태웅식품(주) 대표이사와 성정웅 정아토컨(주)대표이사를 선출하였다.

〈중고 김부영 편집위원〉

국민학교연맹

연맹의 발전과 결속 다짐 정기총회 개최

국교연맹은 2월 2일 목동의 금강산회관에서 18명의 이사와 12명의 기술심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정대회장은 '90년도의 체육부장관기 전국국민학교대회가 KBS의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TV에 중계되는

태권도 소식

등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음을 상기하며 올해의 사업을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범 태권도 어린이 82명 표창

국교연맹은 '90년도 전국 국민학교 졸업식에 즈음하여 국민 학교를 졸업하는 모범 태권도 어린이 이성진(경기 일산국교) 외 81명(64개교)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임정태회장은 태권도 어린이들은 태권도 정신을 발휘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조국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2000년대를 다함께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교 황성길 편집위원〉

해외지부

브라질지부 신임회장에 이계준씨 선출

대한태권도협회 브라질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이계준씨를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 ▲회 장 : 이계준
- ▲감 사 : 오충환
- ▲부 회 장 : 임창선 · 이신화
- ▲전무이사 : 권금준
- ▲총무이사 : 김제진
- ▲기술경기이사 : 강태종
- ▲섭외이사 : 박재강
- ▲시범이사 : 김요진

칠레태권도연맹, 남미선수권대회 개최

1992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칠레태권도연맹은 대회 경험 축적과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칠레의 한 해변도시에서 남미선수권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대회에는 칠레를 비롯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5개국이 참가했다.



남미선수권대회 개최식 모습.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 IOC집행위원 세계체육지도자 3위

김운용 IOC집행위원 겸 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 독일 스포츠 인테른지가 선정한 '90세계저명 스포츠 지도자 중 랭킹 3위로 선정되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차지했고 아벨랑제 국제축구연맹(FIFA)회장은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올랐으며 김운용총재는 지난해까지 2년간 2위에서 3위로 내려섰다.

동남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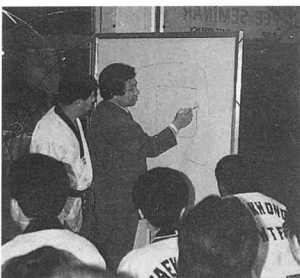
태권도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6회 동남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제16회 동남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권도가 15회 말레이시아 대회에 이어 또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알려졌다.



제24회 국제심판세미나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심판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된 경기규칙과 심판수신호 교육을 실시했다.



국기원

기술심의회(의장 황춘성) 임원 임명장 수여식



김운용원장은 지난 3월23일 기술심의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

의 장 : 황춘성
부 의 장 : 김용서 전재규

장기승
지 도 위 원 : 박명수 권경욱
이영섭 강정구
문창남

기 획 위 원 장 : 최대웅
부 위 원 장 : 한용석 김용수

심 사 위 원 장 : 김중영
부 위 원 장 : 임운택 심재익
박용화

과 학 위 원 장 : 임홍수
부 위 원 장 : 김장식 허영길

국 제 위 원 장 : 이덕태
부 위 원 장 : 임응규 김학근

사회체육위원장 : 이규현
부 위 원 장 : 박찬수 김진위
김관중

교 육 위 원 장 : 고동준
부 위 원 장 : 서인종 이성용

편 집 위 원 장 : 구정도
부 위 원 장 : 전만옥 이고범

연 구 위 원 장 : 안해옥
부 위 원 장 : 이상구 김기일
박재룡

시 범 위 원 장 : 이규형
부 위 원 장 : 박종명 최재무
이종관

상 별 위 원 장 : 김정대
부 위 원 장 : 이동섭 최정선
이학천

협 력 위 원 장 : 강영복
부 위 원 장 : 김영철



주신규

(’92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부 코치)

- 1953년 서울産
- ’84아시아선수권대회코치,
’86아시안게임 코치역임.
- 서울체고 코치

『4월 국가대표선발전 이후 약 1년간의 장기훈련을 통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월9일 바르셀로나를 향한 훈련장소에 오른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단.

남자부 주신규 코치는 연간 260일의 합숙훈련을 통해 체력을 겸비한 다양한 기술배양에 힘쓸 것이라고 훈련방침을 제시한다.

국제대회에서 취약체급으로 지적되는 중량급에 대해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키 위해서는 경량급 선수들보다 훨씬 더 체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태권**



임신자

(’92바르셀로나올림픽 여자부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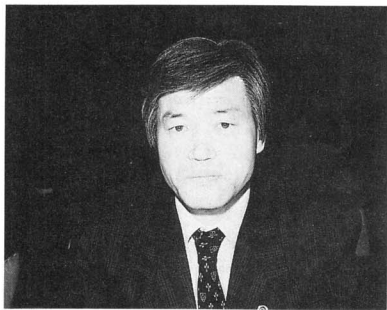
- 1964년 인천産.
- ’79~’86국가대표선수로 활약
-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제2회 시제대학생선수권대회 금
메달리스트.
-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여자
부트레이너 역임.
- 상명여대 코치.

『여자선수들의 경우 기복이 많고, 두번(’91·’92)의 평가전 성격을 겸한 대표선발전 때문에 장기 훈련계획 작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치선임 통보에 심적준비가 미비했다는 임신자 코치는 대표팀 운영에 조심스러움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대표선수들의 대폭 교체에 따른 공백기』라고 분석하며, 보다 엄격한 대표선발 방식을 통해 ‘보강선발’한다면 『중화대북팀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태권**

“코치·선수들에게 상처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작년에 상벌위원장으로 경기장 질서의 중재 역할을 하며 느낀점은?

—태권도계의 고질적 병폐라고들 말하는 경기장 질서문제도 이제는 점차 정리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작년의 경우 일부 코치와 감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단 임원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문란의 주요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간 경쟁이 심한 전국체전이 특히 심한데, 물론 심판부의 미숙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선수단에서 선수의 기량은 생각지 않고 성적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 많은 부서의 장(長)으로 금년 1년을 어떻게 끌어가실 계획이신지?

매년초만 되면 경기장 주변에서는 심판분과의 인사(人事)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진다. 심판분과의 장(長)과 상임심판원의 변경에 따라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인듯. 금년에도 심판부에 적지않은 인사가 있었다. '91년도 태권도 경기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신임 심판위원장 김대연씨를 만났다.

—‘심판부의 신뢰도 정착’을 이루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엄정한 심판행위를 통해 심판의 권위를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심판활동을 보장키위해 각종 형태의 외풍(外風)을 막고, 지연, 학연, 관연(館緣) 등을 고려해 심판을 선정하고, 또 심판들의 권익확대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오판(誤判)이나 항응과 관련한 부정 등 심판부 자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을 통해 경기장에서 나오는 모든 구설과 문제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도 상임심판원의 선발기준은?

—오심률이 낮은 우수하고 정확한 사람을 첫번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지연·학연·특

정팀과 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으로 선발했습니다.

▲작년에는 심판원들의 연령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약 7~8년 상향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심판원이 약 20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 심판원도 모두 30대 중반과 후반입니다. 고참심판원들의 기용으로 오심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임심판원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부위원장님이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심판원들에 대한 고과를 평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회당일 매일 일반론을 주지시키는 방식을 탈피해 경기 종료후 토론기회를 갖도록 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열어 득·감점·경고·우세에 대한 일치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장 큰 변화라면 주심1명, 부심3명으로 구성되는 4심제를 쓴다는 것입니다. 5심제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나 장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각 부심들의 득점표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25%에서 33.3%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정확도가 떨어진거나 판정내용이 잘못된다거나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오심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심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개개인의 정확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주·부심은 감독관이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감독관에 대한 책임은 심판위원장·부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기술심의회 부의장님들이 전(前) 심판위원장 출신들이니 그분

들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어온 '우세의 기준'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일관성있게 적용돼왔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주도권을 가진자'라는 어구에서 '주도권'이란 「득점에 가까운 공격을 많이한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마음껏 경기에 몰입하고 심판들이 흔들림없이 소신껏 판정행위를 하는 명랑한 경기 질서를 위해 전제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벌위원장으로서 일하며 느꼈지만, 무엇보다 상벌이 명확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들을 비롯하여 선수단에 까지 경기장 질서를 혼드는 원인제공자를 정확히 찾아내어 즉시 징계를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재발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랑한 경기풍토 조성에 기여한 선수단과 심판에게는 표창제도를 확대하여 경기질서 분위기를 고무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판위원장으로서 각오 한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독·코치·선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공평하게 심판을 보겠습니다.

더불어 엄정한 심판행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심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연

김대연 • 심판분과위원장

1942년 경남출신. 7단.

70년~80년대까지 협회심판 및 배심원으로 활동

80~8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범생활

'90년 상벌분과위원장

'91년 협회 중앙대의원

경기도 대표로 우수도장상 수상

“어머니 태권도 교실” 열어 생활체육
확산에도 힘써

『다른 도장보다 도장을 운영한다는 건 교육을 시키는데 내세울만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수도장상을 수상하니 더욱더 잘해 모범을 보여 줄만한 도장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됩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시상하는 표창수여식에서 경기도 대표로 우수도장상을 수상한 안양청도체육관의 문헌호관장은 1975년도에 안양에서 도장문을 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을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왔다.

『솔직하고 부지런함』을 생활신조로 살고 있다는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태권도 지도 준비를 한다.

그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중앙국민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시간씩 태권도를 지도한다. 여기에 참가하는 어린이는 50여명.

이렇게 어린이 지도를 마치고 30분간의 휴식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중앙국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을 연 “어머니 태권도



교실”이 9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

“어머니 태권도 교실”은 문헌호관장이 점차 확산되는 생활체육을 태권도를 통해 기여하겠다는 의도로 '90년 10월부터 시작하게 된 것.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학부형들에게 인식되듯이 성인들에게

도 호신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50여명의 어머니가 등록, 매일 20여명이 나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지만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도 생활체육 확산에 힘을 쏟고 있으므로 시의 도움을 얻어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중앙국고 실내체육관에서 두차례의 수련을 실시하는 동안 청도체육관은 고요하지만 오후가 되면 어린이들의 재잘거림과 우렁찬 기합소리가 반복되면서 활기가 가득찬다.

국고 저학년반, 고학년반이 이어지고 저녁에는 중고등일반부 수련이 있다.

이렇게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생은 모두 130여명에 이른다.

태권도 지도를 통해 그는 수련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그가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태권도인이다.

그래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될 것과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학생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태권도를 배울 자격이 없다』고 수련생들에게 엄포 아닌 엄포(?)도 하기 때문에 학업면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은 것도 이 도장의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이다.

문현호 관장은 그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부지런히 학교 태권도 지도를 통해 태권도 보급에 힘써 왔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안양동국민학교에서, 1988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양중앙국민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1988년 3월부터 작년말까지 호계중학교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해왔다.



어머니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습.

“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학부형들에게 인식되듯이
성인들에게도 호신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 필요

”

이렇게 안양에서 가장 활발히 태권도를 지도해온 문관장은 앞으로 “어머니 교실” 활성화에

주력할 뿐더러 도장에도 성인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1남 2녀를 두고 있는 그는 『세자녀를 모두 어릴때부터 태권도를 시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누구보다도 태권도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 같아 어느 학부형이 어린이의 태권도 수련에 대해 상담해와도 자신있게 태권도를 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듯이 어린이들의 태권도 수련을 지켜보는 그에게는 잔잔한 미소가 머금는다. **태권**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태권도로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평화의 마을, 대전 애육원(조현도 사범)

물질적 도움대신 태권도를 통해 건전한 정신을 심는다.



(태권도축제에서 합성을 지르는 원생들)

대전 직할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사회 복지법인 대전애육원(평화의 마을)을 찾았다.

대전 애육원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기위해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다.

현재 국민학교 어린이에서 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90여 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못한대신 정부의 뒷받침과 설립자의 봉사정신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나 정서적 불안정과 공동생활에서 오는 안일함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들은 야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만 3년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봉사, 박애의 정신으로 태권도를 지도하여 주위 모든 분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제일체육관 조현도(5단) 사범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조사범은 5년전부터 가양동에 서 제일체육관을 개설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 왔는데 이웃에 애육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애육원은 이웃의 무관심과 도움을 주는 손길도 적어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생들의 교육, 후생시설은 낙후되기 한이 없었다.

특히 청소년기에 올바른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면 교육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었다.

조사법은 이들에게 무엇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 접근할까를 깊게 생각하고 주위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시도했던 것.

조사법은 이웃 체육관 사범들(학사체육관 외 8개도장)과 지원 대책을 협의하여 물질적 도움보다는 건전한 정신교육에 앞장서기로 결심하고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1월 20일부터 체육도장운영의 한 프로그램으로 애육원 지도를 삼입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이들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동안 통제없이 자란 청소년들이라 구속력과 규율을 강화하니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그리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원생들은 “시설병”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집단 생활에서



조현도 사범

빛어지는 공통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나태감·좌절감·감사할 줄 모르는것 등으로 요약되는데 조사법은 이 “시설병”을 고치는데 우선 발벗고 나섰다.

자비로 태권도복을 구입, 가장 성실한 어린이 5명을 선발해 무료제공 함으로써 사기와 동기 유발을 증진시키고 질타보다 칭찬을 위주로 태권도를 지도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했다.

토요일 오후에는 체육관 수련생과 축구경기 등산 게임 등을 함께 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성 발달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대전시 태권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석, 중등부 단체3위를 입상하는 등 자신들이 하면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3년이 지난 현재 원생들은 학업성적 및 생활태도면에서 놀랍게도 변화하여 그동안의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명랑하고 예의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육원의 권술통총무는 『태권도 교육이 원생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학교교육 이상으로 크다』며 지속적으로 지도해 줄것을 조사법에게 부탁하면서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설원생들에게는 정부의 영세민 지원책으로 보조되고 있으나 태권도를 수련하는 원생들의 도복 체육복 운동기구 등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조사법은 원생들에게 태권도를 통하여 인격을 수양,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계속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태권**

〈대전 오도균 편집위원〉

태권가족



이 향원





어떤 誤解



글 · 吳榮錫
그림 · 이향원

아내 민숙이 그에게
그 어떤 오해를 품은 채
집을 나간 지가 오늘로서
3일째나 되기
때문이었다.

현섭은 직장에서 하루종일 우울했다. 아내 민숙이 그에게 그 어떤 오해를 품은 채 집을 나간 지가 오늘로서 3일째나 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토요일, 현섭은 아침부터 공연히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민숙의 처가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 민숙이 집을 뛰쳐나갔다고 하더라도, 고작 갈 곳이란 정릉에 있는 처가밖에 더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려 보았던 것이다. 아나, 그럴 순 없어. 이번 기회에 그녀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놓아야 해. 이렇게 돌이켜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그럴 순 없지—이런 자문자답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보낸 오전 내내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가 못했다. 게다가 1시면 업무가 끝난다는 주말의 기분까지 작용하여 마음은 자꾸만 허공에 뜨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장모님도 만나볼 겸 오후에 정릉으로 찾아가 본다? 이런 약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던 현섭은 그래도 남자의 체면이 있지, 하는 자존심 때문에 들었던 수화기를 도로 제자리에 내려 놓았다.

“박형, 자네 오늘 웬일이야? 어디 술집 아가씨하고 데이트라도 하려고 망설이는 건가? 웬 수화기는 아까부터 자꾸만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야. 내가 안 보고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얹어 놓으시고 통화하시라구.”

바로 옆자리의 광수가 하는 소리였다.

“아냐, 그렇게 아냐”

현섭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소년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머쓱해진 얼굴로 광수를 돌아다보았다. 광수는 그와 입사동기였고, 또 다정한 술벗이기도 했다. 바늘에 실 가듯 술집에는 언제나 함께였다.

“그렇게 아니라면 뭐지? 요 며칠 동안 자넨 몹시 우울해보였어. 두 주일 동안의 특근으로 늦게 들어간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몸담고 있는 이 D기업에서는 연초를 맞아 새해에 파이팅하자는 자세로 자진해서 하는 특근이 있었다. 물론 특근수당이야 적지않게 나왔지만, 그것이 밤 11시까지이고 보니 자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욕심에서 현섭은 무리인 줄은 알지만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물론 이 일을 민숙과 상의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부유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돈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줄 리 만무였기에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난하게 자라왔지만 자존심이 유달리 강한 현섭은 죽어도 처가의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민숙은 남편의 매일같은 밤늦은 귀가에 오히려 품고 토라진 나머지 집을 나가버렸던 것이다.

“아내가 집을 나갔어.”

현섭이 한참만에 씩씩한 표정으로 말하자, 광수는 비로소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알 만하다는 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가엔 연락해 봤나?”

“아니.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던 거야”

현섭은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옛끼 이 친구야. 내가 대신 걸어주지.”

광수는 수화기를 집어들자, 어서 번호를 말하라는 시늉을 표정에 담았다. 현섭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민숙은 처가에 없었다. 약간 실망에 찬 표정을 짓는 현섭에게 그가 다시 물었다.

“어디 또 갈만한 데가 없나?”

광수가 고개를 끄튼 채 물었다.

“모르겠어. 친구들 집 전화 번호는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때 종무를 알리는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자, 나가자. 내가 기분전환 시켜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인천에나 가자구.”

가정이 부유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돈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줄 리 만무였기에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섭은 날렵하게
머릿속을 회전시켰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회답을 얻어냈다.
“송도쪽으로 갑시다”

“인천엘?”

약간은 얼떨떨한 얼굴로 현섭이 되물었다.

“그래,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안주삼아 소주를 쭉 들이키는 맛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거야.”

“.....”

현섭은 두말없이 광수의 뜻에 따랐다.

주말의 오후인데도 연안부두에서 바라다보이는 인천의 겨울바다는 한산하기만 했다. 두 사람은 전망이 좋은 술집 2층 창가에 자리잡고 앉아 술잔을 주고 받고 있었다.

“박형, 여전히 우울해하고 있군 그래.”

벌써 소주 세 병을 다 비웠는데도 별로 말이 없는 현섭에게 광수가 딱도 하다는 듯이 말했다.

“.....”

이제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하는 바다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나 현섭은 아무 대꾸도 하질 않았다.

“박형은 엄처시하였지?”

광수가 또 물어왔다. 그러나 현섭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처가가 너무 돈이 많으면 남작 쪽이 대개 무너지는 법이야.”

광수는 철철 넘치다시피하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 다시 덧붙였다.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지.”

현섭은 바다로 향했던 시선을 얼핏 거두며 광수를 돌아다보았다. 그리고 그 어떤 해결책을 모색이라도 하듯 물었다.

“어떻게 해서?”

“순 배짱으로 다스리는 거야.”

“순 배짱으로?”

현섭은 그렇게 반문하긴 했지만, 곧 풀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건 말도 안돼! 내가 민숙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민숙 또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현섭은 자신도 모르게 단숨에 잔을 비워버렸다. 또 한 병의 술이 바닥이 났다. 광수가 술 한 병을 더 시켰다. 현섭은 술이 오는 동안, 이제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수평선마저 사라진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언제였더라? 문득, 머리 가득히 파고드는 추억 한 토막이 있었다. 민숙과 첫사랑의 깊은 못에 빠져 인천 바닷가를 거닐 때 들었던 해상 위의 간이주점. 지금은 휘황찬란하게 간판이 나붙어 있고, 수족관들을 요란하게 설치하여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들로 하여금 손님을 부르고



있는 이곳 연안부두이지만, 그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거긴 어디였더라? 현섭은 날렵하게 머릿속을 회전시켰다. 그러다가 마침내 현섭은 그 회답을 얻어냈다.

“최형, 나 화장실에 좀...”

현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화장실과는 반대 쪽인 계단을 급히 걸어 내려갔다. 밖에 빈 택시는 많았다. 그중 한 기사에게 그는 부탁했다.

“송도 쪽으로 갑시다.”

차가 송도 쪽을 향해 달리는 동안, 현섭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현섭은 분명히 보았다.
바다쪽으로 난 자리에
민숙이 혼자 오두마니
앉아 있는 모습을.

까 하는 후회를 수없이 되씹고 있었다.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현섭은 그 해상주점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아직도 늦지 않은 시각이어서 그 해상주점은 불빛을 바다 위에 던지고 있었고, 몇몇 손님의 모습도 엿보였다.

설레이는 가슴을 한손으로 쓸어내리며 현섭은 빼격거리는 나무다리를 걸어갔다. 그리고 입구에 섰을 때, 현섭은 분명히 보았다. 바다 쪽으로 난 자리에 민숙이 혼자 오두마니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처음 자기와 데이트할 때 시켰던 음식과 술을 그때 그대로 앞에 놓은 채 시커먼 바다를 응시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현섭은 그제서야 그동안에 마신 술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민숙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런 발길을 그쪽으로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민숙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확인하고 있었다. **END**



오영석

작가 약력

- 1934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
- 1958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 1959년: [현대문학]에 단편 〈3人像〉〈少女〉추천으로 문단에
나옴
- 주요 작품: 장편 〈長髮馬車〉〈江邊 아파트〉〈매일 부는 바람〉,
중편 〈신약 창세기〉〈마지막 축제〉〈꿈꾸는 눈동자〉
〈綜合 病棟〉등, 단편 〈惡人, 천국으로〉〈구두와 혼
장〉〈나비의 일주일〉〈百合 세송이〉〈오작교〉등
100여편 발표
- 경 력: [주부생활] · [신여원] · [여성세계] · [백조] 등 편집장
지냄
- 수 상: 제12회 한국 소설 문학상 수상(1986년)
제 9회 一鵬文學賞 受賞(1990년)

신라시대 태권이 화랑도 정신에 끼친 영향

I. 서 언

창세기 이래 인류는 손과 발 그리고 두뇌의 활동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왔다. 태권도 또한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발전하여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무도가 된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근래에와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88년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사실은 태권도가 세계무도로서 그리고 스포츠로서 널리 인정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우리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신라시대 화랑도 정신과 세속오계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삼국 이전의 태권도

태권도 역사가 멀고 길다 함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자연 속에 자라나는 동물과 식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그 미개한 채집경제단계의 생산능력이 생활을 풍족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예와 그 무예의 바탕이되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의 배양이 절실하여 여기에 무예를 중심으로 한 체육이 병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시인들은 자신들의 체력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도구의 힘보다는 흉내내기 놀이 및 달리기, 던지기, 뒹뒹기, 기어오르기, 해업치기, 때리기 등 인체활동의 기본동작을 연마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동작은 부모나 연장자가 자기가 겪은 경험을 어떠한 경험 없이 즉흥적으로 가르쳤을 것이며¹⁾ 신앙 역시 천신 태양 등을 숭상하는 원시신앙이었기 때문에 5월의 씨뿌리기나 10월의 추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신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지내며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풍습이

김 동 주

(전북 성내중학교 교사)

1) 라순성 : 한국체육사. (문천사. 1979) p.5

있었기에 이러한 의식이 계속됨에 따라 강한 몸을 만들고 투쟁 경험을 위주로 투기를 체계화 하였으니 이러한 농악을 비롯하여 제천대회에서 여흥으로 즐기던 유희 오락이 점차 경쟁 의식을 갖게되어 경기로 발전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것은 다신교를 신봉하는 그리이스인들이 여러신의 영(靈)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전에서 제천경기를 행한(올림피아) 경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기에 태권도 역시 이와같은 경로를 통하였을 것이니 그 원시적인 기원은 인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III. 삼국시대의 태권도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 “무용총”에는 태권도를 거루고 있는 두사람의 젊은이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 벽화가 있는 무용총 고분은 A.D 3년부터 427년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현재 만주 통화성 집안현 통구)에 있으므로 달마스님이 중국에 오기 훨씬전에 이미 한국의 고유의 무예를 발전시켜왔음을 증명해 준다. 이 고분벽화의 한 사람은 왼쪽을 향하여 그의 왼손으로 몸 중심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왼쪽 손을 뻗어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벽화에서 보여주는 이 두가지 자세는 오늘날 거루기에서 취하는 자세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고분벽화가 A.D 3년부터 A.D 427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면 태권도는 최소한 이 시기에 벌써 태동했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³⁾

신라의 진흥왕은 화랑도라는 청년무사단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선배를 모방한 것으로 원래는 풍류도 혹은 풍월도라고 부르며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인격도야와 심신단련에 힘써 김유신 김춘추 등 우수한 인재들

배출하였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신라시대의 특이한 것은 수박과 태권이라는 용어가 같이 나타났는데 수박은 손기술의 명칭으로 검술이나 다른 무술의 기초 수련으로 무인이나 상류층에 치중된 기술이고 일반 평민은 위력이 강한 발기술을 중심으로 태권을 행하였다. 신라시대 태권을 행하였던 생생한 자료로는 금강역사상이나 인왕상에 무인의 수련상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선덕왕 3년(634)에 세운 분황사탑 기단의 인왕상이나 분황사 동남쪽의 폐탑에서 발견된 석각 인왕상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인왕상에는 공방자세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불국사의 금강역사상보다도 50년이 앞선다. 또한 힘의 상징인 금강역사상을 보면 공격과 방어의 선명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금강역사상의 주먹과 편주먹이 현재의 모양과 같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술(術)이 현재의 태권도와 같은 형태까지 발전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⁴⁾

백제에서도 고구려나 신라와 같이 태권도 실시에 대한 실증은 희박하나 삼국이 세력다툼을 하던 시대인 만큼 고구려와 신라에서 행하여졌고 후일 고려에 전승된 점으로부터 백제에서도 다른 무예와 같이 수박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비류왕 17년 8월 서쪽에 사대(射臺)를 쌓고 매월 초하루 보름으로 활쏘기를 연습했다.” 함을 보면 활쏘기 뿐만 아니라 다른 무예도 같이 하였을 것이며 나현성은 그의 한국체육사 연구 「삼국시대의 무예적 유희와 오락 조」에서 “삼국이 다 같이 개인의 호신술인 각저, 수박등의 경기적이고 유희적인 무술을 하였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사인, 대좌평, 지적등을 일본 조정에서 초청하여 일본 건아들과 상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백제시대에도 태권이 행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⁵⁾

2) 문교부 : 체육고등학교교육자료, 고.6420(문교부, 1984) pp.8~9

3) 김대식 : 세계로 뻗는 태권도(나남, 1984) p.7

4) 문교부 : 체육고등학교교육자료, 고.6420(문교부, 1984) pp.11~13

5)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지31, 32합본(대한태권도협회, 1979). p.84

IV. 신라태권의 역사적 배경

신라가 건국되기는 서기전 57년의 일이다. 진한, 마한, 변한의 세나라 가운데 진한이 부족집단 체제를 이루어 서라벌(지금의 경주)에서 박혁거세가 6부존장의 추대를 받아 신라국의 건국을 보게 되었다.

건국하기에 앞서서나 신라를 창건한 이후에 있어서도 신라는 끊임없이 외부세력으로 부터 침략을 받아 마음편할날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라는 일찍이 씨족체제 국가 형태를 밟았고 사회기풍은 상부상조 협동력이 강한 민족성을 지니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잊지 않았고 정치, 군사, 경제면에 있어 서로가 의존하고 또한 의견을 모아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씨족사이의 명예를 제일로 삼고 용맹과 기풍을 떨치며 씨족의 귀감됨을 자랑으로 아는 정신적 철학이 확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단순한 씨족사회의 기풍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단순한 씨족사회의 기풍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용맹스러운 기풍이 나올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태권도의 원류인 수박이라는 무예가 그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될 줄로 안다.

신라의 젊은이들은 심산대천을 배경삼아 대자연을 벗삼아 웅장하고 신비한 정신적 수양을 토대로 육신을 연마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을 상례로 알았다.⁶⁾

V. 신라의 태권과 화랑도

1. 화랑의 기원

화랑도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언제부터 신라

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중흥의 태도로 발전 체계화되었는가 하는것이 문헌의 불충분으로 분명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문헌(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과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화랑도의 기원은 대체로 삼국시대 초엽에 남자 미성년집단 청년집회로써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신라의 융성기에 해당하는 진흥왕때 고구려 백제와의 투쟁이라는 상황에서 위기속에서 국가를 구하고 국가 중흥을 일으킨다는 명분아래 민간청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화랑출신의 용장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진흥왕 37년에는 왕명에 의해 공식적 단체로 성장하였다.⁷⁾

2. 화랑의 정신과 세속오계

“삼국사기”에 의하면 화랑도가 처음 시작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진흥왕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처음에 군신들이 인재를 알지 못하여 근심한 끝에 많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여 그들의 행실을 보아서 이를 등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아름다운 두 여자를 선택하였는데...

「그 후에 다시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고 화랑이라 이름하여 이를 받들게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게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뽑아 이를 조정에 추천하게 되었다.」

위의 문헌에서 살펴 본 대로 화랑도는 처음부터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도 혹은 인재를 선택하기 위한 고시제도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더욱 뒷받침해 주는 자료는 안장부(A.D. 1712~1791)의 ‘동사강목’으로 신문왕 2년 6월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는 학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랑제도로써 인재등용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에서는 화랑도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인간교육과 생활교육

6)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지 제5호(대한태권도협회.1972) p.48

7) 모연호, 허경진, 장동익 편저 : 화랑도와 화랑열전(학문사. 1978) p.9

을 목적으로 했고 동시에 본인의 인물과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의하면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에서 배출되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한 것은 화랑도 교육이 국가적·사회적 교육기관으로서 중대한 사명이 되었음을 말한다.

즉 신라의 청소년에게는 군사적 기능과 사회생활의 실제적인 공민과 덕성을 훈련받게 하였다. 그러니 화랑도 교육은 신라 국가를 다스릴 중심인물을 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 무사가 될 수도 있는 국방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시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민족, 한 국가라는 삼국통일의 소망을 가졌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그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화랑정신을 추측해 본다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씩씩한 중년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국토방위와 국위선양에 총동원한다.

나) 국민의 상무정신 기풍을 형식 진작시켜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에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한다.

다) 조국의 앞에 개인의 이름을 용인치 않고 조직과 규율을 통하여 언제나 희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다.

이러한 정신의 무장을 촉진시켰던 것이 이른바 세속오계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세속오계를 처음으로 설정한 사람은 스님 원광이다.

이 세속오계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국가적인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귀산, 취항 등 몇몇 화랑들의 물음에 답을 한 사사로온 교훈이었던 것이 널리 소개되어 자연적으로 화랑오계로 공인되었고 화랑도의 중심이념으로까지 발전하여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제 그 연유를 살펴보면 원광이 수나라로부터 귀국하여 (A.D. 600년) 청도에 있는 가솔사에 있을 때 사랑부에 사는 귀산과 취항이 원광을 찾아

가 평생을 두고 계명으로 삼을만한 가르침을 청했을 때 원광은 상대방이 출가한 승려가 아니고 신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살계 보다는 속세에 적합한 소위 세속오계를 일러 주었던 것이다.

그 오계의 내용은 “해동고승전”원광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 할 것.

사친이효: 아버지를 섬기되 효로써 할 것.

교우이신: 친구를 사귀되 신의로써 할 것.

임전무퇴: 싸움에 임하여서 물러나지 말 것.

살생유택: 산 것을 죽임에 반드시 가릴 것.

이 오계는 대체로 세속적인 계율이나 대개 유가 덕목(충, 효, 신, 용, 인)에 의한 것이다.⁸⁾

VI. 화랑의 무예수련

화랑의 무예 수련은 선배와 같이 수박, 격검, 사예, 기마, 덕견이, 양감질, 씨름 등이 행하여 졌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삼국통일의 근간을 이루었다.

안계현은 그의 팔관 회고에서,

「진흥왕 12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귀화한 해랑을 승통으로 팔관회를 만들었는데 불교의 팔계 보다는 민간신앙의 제천 대회에 가깝고 군사적, 가무적, 수련적 기능을 가진 화랑이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신채호도 조선상고사에서 「국선 화랑은 진흥대왕이 곧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닮아 온지라 학문에 힘쓰며 수박, 격검, 사예, 기마, 덕견이, 양감질, 씨름 등 각종 기예를 하며 원근 산수에 탐험하며 시가와 음악을 익히며 전란시에는 전장에 나아가 죽음을 영광으로 알아 공익을 위하여 일신을 희생하는 것이 선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수박이란 용어와 태견이 같이 나타남을 보아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지금까지 체계가 불분명하던 태권이 신라로 넘어 오면서 손기술과 발기술이 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박이란 손기술의 명칭으로 무인이나 상류층

에 치중된 기술이고 검술이나 다른 무술의 기초 수련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반 평민들은 몸 이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으므로 위력이 강한 발을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는 ‘태권’이란 말이 이두 말에서 비롯되었다함과 후일 이말이 탁견이란 한자로 표기되었음을 보아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사상은 김유신의 무리를 용화향도라 불렀고 진흥왕이 해랑을 승통으로 관관화와 호국인왕경을 독강하는 백자 강회를 행한 것으로 보아 미륵 신앙과 결부된 호국불교 사상이었고 화랑의 무술 역시 호국 위주이었던 만큼 호국을 의미하는 금강역사상이나 인왕상에 무인의 수련상이 나타나 있어 지금까지 생생한 자료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⁹⁾

Ⅶ. 결 언

고려시대에 태권이 국가안보와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크게 공헌했음과 같이 신라시대에 있어서도 태권은 국가적 요청이나 개인의 호신 영달을 위해 큰 발자취를 남겼음을 알아 보았다.

끝으로 신라의 화랑정신에서 숭고한 무도 철학을 이어받은 태권이 얼마나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경이였는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호신 뿐만 아니라 출세길을 개척하는데 신라의 태권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해석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전이를 살필 수가 없었지만 대충 더듬어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신라시대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길러내고 또한 뒷받침하는데 태권도의 역할은 진정 크고도 컸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은 한마디로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여건 자체가 고대에서부터 태권도와 친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간추려진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태권도는 한국 민족의 중심을 잡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실을 다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고유무술인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태권**

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31, 32합본(대한태권도협회.1979) pp.83-84

참 고 문 헌

1. 라순성: 한국체육사, 문천사, 1979.
2. 문교부: 체육고등학교교육자료, 고, 6420, 문교부, 1984.
3. 김대식: 세계로 뻗는 태권도, 나남출판사. 1984.
4. 대한 태권도협회: 태권도지 31,32호합본, 대한태권도협회, 1979.
5. 대한 태권도협회: 태권도지 5호, 대한태권도협회, 1972.
6. 모연호, 허경진, 장동익편저: 화랑도와 화랑열전, 학문사. 1978.
7. 김경지, 나봉준, 이은송편저: 태권도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84.
8. 김위현: 무예도보통지 번역, 민족문화사. 1984.
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9호, 대한태권도협회, 1973.
10. 문교부: 체육교육자료총서 40호, 서울출판사. 1976.

[illegible]

* 서 론 *

지난 겨울호 태권도 세간지에 도장운영의 전산화란 제목으로 수련생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한 일이 있다. 이제 우리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도 컴퓨터란 기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 같아 태권도지 지면을 통해서 컴퓨터란 무엇인가, 컴퓨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한 시리즈로 실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이 번호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심고자 한다. 모처럼 우리 관장님 및 사법님들도 이 기회에 컴퓨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컴퓨터를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지금부터 쓰여지는 내용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통해 접한 컴퓨터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기준으로 쓴 것이므로 전문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서는

- 1) 컴퓨터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전망
- 2)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의 종류(구분)
- 3)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 4) 컴퓨터의 호환성이란(구입요령)
- 5) 업무에서의 컴퓨터 도입 효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적인 컴퓨터의 사용방법인 MS-DOS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다.



(청호태권도장 관장)



1. 컴퓨터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전망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계산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단순히 숫자의 계산 개념에서 출발한 컴퓨터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숫자의 계산 개념이 아닌 논리적으로 혹은 확률(%)에 근접하는 사고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즈음 실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내장한 가전제품들이 이른바 컴퓨터의 신 개념인 퍼지(Puzzy) 개념을 응용한 것들이다.

실제로 컴퓨터는 상당히 명칭하고 답답하다라고 표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YES, NO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각 기능을 컴퓨터는 엄청난 차이로 구분을 하게 된다.

사람이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등 등 여러가지 느낌을 느끼는데 반해서 컴퓨터는 오직 차거나 뜨겁다 라는 극단적인 판단만 하게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칭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컴퓨터개념은 YES, NO로 둘 중의 하나라는 개념이 아닌 확률에 근접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논리적 사고 개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논리적 사고 개념을 퍼지(Puzzy)이론 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금전에 예를 들었듯이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라는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차이를 거의 유사하게 감지해 내는 능력이 있다.

가끔 공상 과학 영화에서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묘사 되는데 퍼지 개념의 컴퓨터가 아마 그러한 실제로 인공 지능에 가까운 컴퓨터를 탄생 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단순히 숫자의
계산 개념에서
출발한 컴퓨터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숫자의 계산 개념이
아닌 논리적으로
혹은 확률(%)에
근접하는
사고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2. 개인용 컴퓨터의 종류(분류)

흔히 개인용 컴퓨터 혹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처리 장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란 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현 배경과 이용 형태를 고찰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전문용어가 많아 여러분이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고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하기로 하겠다.

현재 P.C의 종류에는 8비트로부터 시작하여 16비트-XT 16비트 286AT 386 486 등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 즉 Personal Computer를 이후 부터는 PC라고 표현 하겠다.

PC는 8비트로부터 16비트 32비트로 구분을 하는데 8비트 16비트 32비트의 차이점은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길 즉 도로의 차선에 비교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을 하는데 8비트는 8차선 16비트는 16차선 32비트는 32차선을 사용하여 왕복을 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인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양이 32라고 가정을 했을 때 8비트 컴퓨터로는



**높은 비트수의
컴퓨터 일수록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다**

4번 왕복을 해서 처리를 하고 16비트로 2번 32비트로 1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은 비트수의 컴퓨터 일수록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다른 비유를 들면 자동차에 비유 할 수 있다. 16비트XT는 포니승용차에, 16비트AT(286)는 소나타에, 32비트AT(386)는 그랜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같이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각 기종간의 기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조금 전문적인 설명을 하겠다. 8비트 컴퓨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가 제쳐두고 16비트 중에서도 XT와 AT의 구분 및 386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컴퓨터 구성품 중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핵심적인 구성품이 있는데 이를 두고 CPU라고 부른다.

초기의 IBM-PC와 IBM-PC/XT는 이 중앙 처리장치로 8088이라는 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640KB 내부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때는 8비트로 처리를 하고 외부에서의 데이터처리는 16비트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16비트XT 컴퓨터라고 부른다.

16비트AT란 8088 대신 80286이란 칩을 사용하는데 8088과 마찬가지로 16비트로 데이터를 처리 하지만 외부 장치와 정보를 교환할 때 8088은 8라인을 사용 하는데 반하여 80286은 16라인을 사용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8차선과 16차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본다. 더우기 두 도로의 제한 속도마저 차이가 난다면 두 도로 사이의 통행량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실제로 80286 즉 16비트AT는 16비트XT컴퓨터보다 서너배 정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근래의 소위 CLOCK SPEED를 높은 80286 컴퓨터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우 높은 것과 같은 컴퓨터로 최초의 IBM-PC와 비교 한다면 10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갖는 컴퓨터가 만들어 지고 있다.

PC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386 시스템은 80286 CPU보다 더욱 발전된 32비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앙 처리 장치에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향후 대부분의 PC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64비트의 처리 속도를 갖는 80486을 CPU로 사용하는 PC도 선보이고 있어서 PC의 성능 향상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현재로서는 16비트 AT급인 286시스템내지는 좀더 고급인 386시스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가격이나 현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 한다면 16비트 AT급인 286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3.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이 아닐 것이다.

단 컴퓨터가 어떤 때에는 매우 도움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이는 업무에 따라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대신 다 해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일례로서 탁상용 계산기와 씨름하면서 연필과 종이로 반복하던 작업을 컴퓨터를 활용 하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개인의 모든 업무에서부터 산업전반에 대한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전에 예를 들었던 연필과 종이가 필요없는 사무실에서의 OA 업무처리는 물론 군인들의 군사훈련 및 우주선의 설계 제작 실제로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실제의 제작 및 발사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컴퓨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급속히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보통 사람도 쉽게 자신의 업무를 컴퓨터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쉬운 프로그래밍(USER-PROGRAMMING)시대의 개막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용이하며 모든 업무에 두루 적용 할 수 있는 범용의 업무용 프로그래밍 패키지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덕택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용하면 되겠다.

4. 컴퓨터의 호환성(구입요령)

컴퓨터가 탄생된 이후 여러가지 컴퓨터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컴퓨터의 대부분이 서로 호환성을 갖지 못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겪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퍼스날 컴퓨터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심지어는 같은 제조회사의 퍼스날 컴퓨터도 기종에 따라 전혀 호환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호환성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컴퓨터간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큰 마음먹고 구입한 컴퓨터가 이 호환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그 효용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보자일 경우에 특히 이러한 호환성의 측면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서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없거나 값 비싼 프린터나 주변기기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이 호환성 때문에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OS도 컴퓨터의 기종에 따라 혹은 컴퓨터의 제작사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부분이 기종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16비트 개인용 컴퓨터의 대부분은 IBM-PC 혹은 XT, AT기종과 호환성이 있다가나 PS/2 시리즈와 호환성이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호환성이란 암암식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생각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설황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는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대신
해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준다.**



컴퓨터화란
것은 업무의
체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업무를
컴퓨터화
하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호관계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능률
향상의 전기가
이루어진다.

디스켓을 다른 시스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곧 호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호환성 때문에 컴퓨터의 선택에서부터 망설이게 되는데 만약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IBM-PC 계열 16비트 AT급인 286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일상적으로 집이나 도장에서 사용하는데 갖추어야 할 주변기기 및 옵션은 다음과 같은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1. 몸통은 IBM-PC계열 16비트AT 286 (이상)
2. HARD DISK는 40MB (이상)
3. 기본 메모리는 1MB 이상
4. 플로피 디스크 1.2MB(5 1/4 INCH 1개(2개면 더욱좋고)
5. 14인치 모노크롬 화이트 모니터
6. 101 키보드
7. 한글 카드는 완성형 카드(옴니 한글 카드: 다른것을 써도 됨)
8. 프린터는 EPSON 계열 24핀 80 칼럼(양방향 인쇄)

위의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은 약 130만원대 정도이다.

5. 업무에서의 컴퓨터 도입효과

컴퓨터화란 것은 업무의 체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업무를 컴퓨터화 하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호관계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능률 향상의 전기가 이루어진다.

컴퓨터는 고속처리 능력과 대량의 자료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종류의 도구와 수단으로도 가져다 줄 수 없었던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또한 그러한 편리함은 경제적 시간적 이득으로 이어진다. 도장 관리에서만 보더라도 일일이 기록하던 일들을 전부 컴퓨터가 대신해 주고 있다.

출석부관리 수련비납부 심사채점표작성 심사결과 수련생 개인에 관한 모든 것 등등 지금까지 손으로 기록하고 서류철을 뒤져서 필요한 자료를 얻던 것을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수련생 개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집으로 보내주고 하는 일은 관장이나 사범 훈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곧 처음에 얘기했듯이 편리함을 훨씬 넘어서 시간적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컴퓨터의 도입효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한 컴퓨터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두서 없이 적어 왔다.

특히 도장운영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청호 태권도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전화 415-4906)

다음호에서는 MS-DOS 및 워드프로세서의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다. **태권**

필자 • 신성환

'58년 서울에서
출생해 영동고를
졸업했다.

'82년 10월부터
도장을 운영 해왔는데
3년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도장운영에 이를
활용해 왔다.

교육기관의 하나로 인정받는 미국속의 태권도 도장

김 석 련

대성중고등학교 체육교사
대한태권도협회 연구분과부위원장

비행 청소년 교육에 으뜸 으로 인정받는 태권도 정신

세번재의 미국 여행이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뒤섞이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마디로 거대한 규모 속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활 사고 방식과 함께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다.

교통 경찰관조차 없는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질서있게 차례로 한대씩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는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어느 장소에서든 바쁘다는 이유로 질서를 위반하는, 즉 새치기 하는 장면도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질서의식이나 생활의 태도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는 이 나라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잡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 시내에서 거지들이 각설이 차림으로 돈한푼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로변에서 흑인들이 마약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장면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의 대명사 격인 미국의 학교 교육방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능력 위주의 교육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으나 모순도 많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수업시간에 결강을 해도 교사는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 때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행위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대화로 설득

이 글은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미국 땅에서 어떤 노력끝에 교육 기관의 하나로 인정받고, 정착 할 수 있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본 협회 연구분과 부위원장이 미국의 동부 지역인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여 약 2주간 머물면서 여러 태권도 도장을 둘러보고 그곳 체육관의 여러 사범들과 태권도 교육에 관해 나눈 대화를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편집자 주>

할 수 있는 지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활의 자유와 교육기관에서의 제재 불충분으로 인하여 미국의 청소년들은 윤리관이 흐트러지고 도덕이 무너져 사생활이 문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미국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 도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태권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태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이다

본인이 만나본 여러 태권도 도장의 사범들은 한결같이 태권도 그 자체 보다 정신교육에 그 가치를 두고 정신교육을 토대로 태권도 실기를 지도하는 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명지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간 지 10년이 되었다는 강병원 사범은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체육관 운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150여명의 체육관에 락커룸과 샤워실 및 트레이닝 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여 힘든 규모의 체육관에 약300여명의 관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평균 2만불(1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류 대학을 나와 우수한 직장에 들어간 회

“

한국에서 운동을 할 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적 운동을 많이 했으나 미국에 와서 태권도 정신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

사원도 년간 3만불정도의 봉급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큰 성공이었다.

강병원 사범은 자신이 한국에서 운동을 할 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적 운동을 많이 했으나 미국에 와서 태권도 정신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태권도 교육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흐트러진 청소년들에게 예의 규범을 바로잡고 부모에게 효도함과 조국에 충성함을 가르치고 더불어 건강을 찾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적 무술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 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태권도의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고국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사범들에게 자신의 사범 생활중 언어 장벽이 가장 어려웠다고 희망하는 나라의 언



•강병원사범(40세)
미국워싱턴에서 체육관운영
'89년 세계선수권대회 미국여자 대표팀 헤드코치로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어와 품습을 충분히 습득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종주국 태권도인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니고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당부는 국제 대회시 한국 대표팀의 임원들과 선수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얼굴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흐트러짐 없는 경기일정을 보내야 하며 세계 모든 태권도인이 한국팀을 시종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수련생이 느끼고 있는 태권도의 가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성현 사범을 만났다.

그는 78년에 도미하여 2개의 체육관에 약 오륙백 여명의 관원을 지도하고 있어 생활의 안정을 볼 수 있었으며 한국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홍 사범은 미국인이 태권도



● 홍성현사범(41세)
미국 워싱턴에서 체육관운영
메릴랜드주 태권도협회장

“
태권도 수련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지르는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태권도
수련의 진정한
가치 있어
”

도장을 찾는 이유는 건강 증진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서이나 몇 년 수련하다 보면 태권도를 통한 정신의 가치를 더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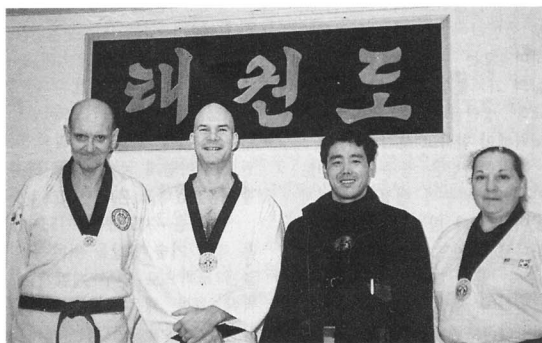
그래서 그의 도장에서 10년이상 태권도 수련을 한 미국인 몇 사람으로부터 태권도의 수련효과를 직접 들어 보았다.

56세로 은행원인 A씨는(사진 좌측에서 첫번째사람) 태권도 수련 경력이 13년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태권도를 통해서 얻은것을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3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을 수 있었고 100파운드의 체중을 감소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의 생활에 있어 놀라운 변화이고 이 밖에도 정신적으로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용기나 절제 등의 부문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태권도를 수련한 덕분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B씨(사진 좌측에서 두번째 수

다.

C씨(우측 여자) 역시 13년의 수련 경력으로 직업은 시장의 매니저(관리인)이다. 태권도를 배우게 된 동기는 직업상 호신술을 위해 시작했으나 지금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은 앞에서 자신의 동료 수련생이 말한 것 외에도 자신의 생활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타인들과 다툼이 많았으나 태권도를 통해 양보하는 미덕을 배움으로써 시장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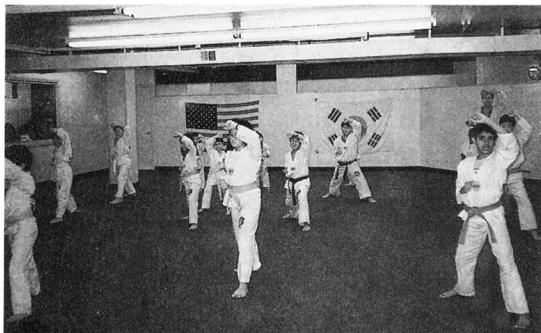


홍사범의 도장에서 10년이상 수련해온 수련생들과 필자(右 세번째)

련생)은 40세로 아마추어 가수 출신이며 지금은 생선장사를 하고 있다. 내성적인 성격인 그는 우울하고 위축되었던 자신의 삶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으며 13년간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더구나 태권도 수련을 보다 열심히한 다 음날은 생선도 더 잘 팔리는 것 같다고 익살을 부리기도 하였

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수련생 모두가 가족같은 느낌이고 태권도는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정말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했다.

이 세 수련생들이 이야기 하듯이 태권도 수련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지르는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태권도 수련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가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미국의 도장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걸어두고 태권도를 수련한다.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들은 모두 합심하여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모든 수련생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성현사범은 종주국 태권도가 경기 위주의 행정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된 사회체육의 하나로 태권도 정신을 승화 시킬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해 주기를 바랐다. 또한 외국 사범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국기원을 방문했을 때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동양 무술의 심오함과 신비성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나 자료들이 잘 갖춰진다면 보다 많은 사범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외국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범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말없이 노력하는 사범들에게도 그 공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

겠다고 하였다.

국내 사범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태권도 사범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태권도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경기 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 없는 노력으로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하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범들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을 진정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 태권도 정신 교육에 좀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선 사범들은 체육관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결코 발로 사람을 차고 주먹으로 지르는 것만을 가르쳐 달라고 체육관에 보내기 보다는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 수 있도록 교육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도자 자신의 모범된 생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할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운영 면에서도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일선에서 수고 하는 태권도 사범 개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오늘날 혼탁한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권**

미국내 태권도 도장의 운영실태

종 류	내 용
체 육 관 규 모	평균 50~100명 정도
기 본 시 설	락커룸, 샤워실, 냉난방시설, 트레이닝실
주 당 운 동 일 수	1주 3일 (1일 1시간~1시간 30분)
월 회 비	70~80 \$
개 인 지 도 회 비	주2회수련 500 \$ 이상
유 단 자 코 스	3~5년
승 급 심 사	3개월 1회 (40~60%합격)
승 급 심 사 벌	40 \$ 정도
특 별 개 인 지 도	600~1000 \$ (액선배우나 유명인사)

“소련에도 한국의 태권도 바람이 불 것”



시범단 감독 · 진 중 의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장)

레닌그라드스포츠위원회의 초청으로 시범단 출국

1990년 한·소 정상화이후 양국간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레닌그라드 스포츠위원회는 소련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하던중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전세계에 보급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받는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인과 소련국민 사이의 우호증진의 계기를 도모하고자 체육청소년부 장관앞으로 초청을 요청함에 따라 시범단이 소련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었다.

시범단 연혁과 합동훈련

대한체육과학대 시범단은 1982년 3월 국기태권도의 체계적인 연구, 발전과 보급에 목적을 두고 초대 이규석교수(현 체육과학 연구소장)를 지도교수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진중의 교수가 지도교수로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197회의 국내시범 및 15회의 해외시범과 매년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가을 축제에 맞추어 태권도 시범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대한체육과학대 시범단은 출발전까지 말 못할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후원자의 성원에 힘입어 방소 시범의 비중이 지대한 만큼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전 20일전부터 합동훈련에 임하였다.

소련에서의 시범이 태권도 전체를 보여 줄 수는 없었지만 27개 부문의 짜임새있는 기술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시범현황

- 일정 : 1991년 2월 23일 - 3월 5일
- 시범장소 : 레닌그라드 레닌체육관 및 아이스링크 체육관
- 관람인원 : 약 45,000 - 50,000명
- 시범단규모 : 19명
- 세미나장소 : 레닌체육관 및 사회체육센터
- 세미나대상 : 재소교포 사범 및 소련태권도 유단자 (I.T.F 유단자주류)
- 후 원 : ○ 레닌그라드 스포츠 위원회
○ 고려인 문화센터
○ 레닌그라드 T.V, 라디오 방송국



페레스트로이카의 몸살을 앓고 있는 레닌그라드

짧은 기간의 여정이었지만 소련사람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온 시범단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처음 도착부터 레닌그라드 V 및 라디오에 소개되어 가는 곳마다 관심과 환대를 받았으며 새삼 메스컴의 위력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의 몸살과 진통을 앓고 있는 관경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으며 소련속의 레닌그라드 사람들은 한마디로 순박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인구 500만의 제2의 도시인 레닌그라드는 문화, 학술, 예술, 사상의 중심지이고 러시아 문화의 발원지이며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를 배출한 곳이다. 레닌그라드 대학교 조선어과 출신의 소련여성 통역관은 200여개가 넘는 박물관이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이같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들 에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한편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듯 페레스트로이카는 대의를 향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가 없으며 더구나 역사의 법칙상 진보일로의 사회가 보수로 뒷걸음 칠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레닌그라드 도시속의 짧은 생활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레닌그라드 T.V 방송국을 통해 소련 전지역에 태권도 시범 방영

뽀얏던 안개속의 레바강이 한눈에 보이는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동이 뜨는 새벽을 맞이한 시범단은 강변을 따라 차가운 바람을 가르면서 시범에 대비해 1시간 정도 조조운동에 들어가 컨디션 조절 및 마음의 다짐을 했다.

특히 이번 시범을 마치게 되면 바로 우리 시범단이 시범을 보였던 체육관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관하는 최초 제1회 소련연방 태권도 대회가 10개 공화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대회에는 북한 사범 20여명이 참가하여 대회운영의 협조와 2일간에 걸쳐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고 하였다.

소련사람들에게는 범 세계적인 체육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태권도연맹(W.T.F)태권도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간에 서

시범단 명단

단	장	최 승	슬라브 연구소장
감	독	진 중 의	체육과학대 교수
임	원	최 우 룡	무역회사 부장
임	원	김 승 호	전국회의장 보좌관
국 제 심 판		김 교 준	체육과학대 교수
국 제 심 판		최 경 량	양광고등학교 교사
코	치	최 귀 역	해룡고등학교 교사
트 레 이 너		권 혁 중	체육과학대 조교
단	원	신 기 현	주장, 체육과학대 3년
		강 현 순	"
		전 수 옥	"
		최 영 복	"
		이 의 정	"
		이 신 규	" 2년
		유 완 순	" "
		김 경 숙	" "
		정 현 섭	" 1년
		신 근 언	" "
		조 상 철	" "

로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우리 시범단은 태권도의 진면목을 소련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체육관으로 향했다.

전날 시범장소를 확인해 두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지만 우리 시범단은 체육관에 일찍 도착해 관중이 입장하기전 다시한번 확인검증을 거치고 휴식을 가졌다.

시범내용은 명상에서부터 준비운동, 기본동작, 연결응용격파, 품새, 이동목표 난이도 기술격파, 응용호신술, 겨루기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1시간 30분 동안 실시되었다.

체육관 정면에 대한민국 국기와 세계 태권도 연맹기, 소련국기가 나란히 위치한 가운데 보인 태권도 시범은 레닌그라드 T.V 방송국을 통해 소련 전지역에 방영되었다.



환호와 박수 속에 시범을 성황리 마치니 고국말을 더듬거리는 한국동포들, 우리를 위해 수고하여준 현지사범들(재소 교포주축), 최승 단장 등이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우리시범단은 출발할 때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느낀 아픔과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 내었구나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시범을 마치자 30-40명의 소련 I.T.F.사범들이 W.T.F.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리 시범단은 이번 시범을 계기로 소련에도 한국의 태권도 바람이 불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튿날 빙상경기장에서 시범을 마치고 재소 교포들의 식사초대를 받아 호텔에 숙해있는 식당에 도착하니 세미나를 마치고 먼저 선착한 김교준 국제심판과 최경량 국제심판, 최귀억코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때마침 몇명안되는 유학생부부도 축하하 동석한 가운데 시범단은 시범과 세미나를 마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냈다.

소련에서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북한 유학생과 북한 사람 2명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들은 태권도 시범을 진지하게 지켜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남과 북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는 한 민족임을 깨달으며 통일의 염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며칠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허지만 아직까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멀지 않은 날에 그러한 것들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레닌그라드 스포츠위원회, 레닌그라드 T.V, 라디오방송국, 레닌그라드 체육대학교 방문

시범단 일행은 레닌그라드 스포츠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에게 시범단 초청 및 머무는 동안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레닌그라드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태권도사범 3명을 파견해 달라는 제의를 정식으로 했다. 또한 향후 7-8월경에 몇명의 태권도지도자 및 합기도지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와 함께 91년 12월-92년 1, 2월에 다시한번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았다.

또한 레닌그라드 T.V,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소련 전지역에 방영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들은 다시한번 소련을 방문하게 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기술담당의 안내로 방송국 견학을 마치고 국장으로 부터 시범모습을 담은 귀중한 비디오 테이프를 선물로 받았다.

레닌그라드 방송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서울-레닌그라드-평양 동시방영을 위해 서울 MBC와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방 및 개혁의 물결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명한 동구권 체육의 대표적 산실인 레즈카프르 체육대학교(일명 레닌그라드체육대학교)의 방문은 매우 인상깊었다.

1896년에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대학은 현재 6개학부에 26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4,000여명의 학생과 연구원이 있다.

총장은 이 대학출신이 헬싱키올림픽 이후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수백개의 금메달획득과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 대회에서 10개의 금메달을 획득 했다고 자랑했다. 총장은 이 대학의 학생체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권도에 대한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한 시간에 걸쳐 총장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생체역학실에서 몇명의 학생이 교수의 지도 아래 인체표본을 놓고 실험 실습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소련 선수의 과학적인 경기력향상이 바로 이러한 생체역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맺는말

소련에서의 태권도 시범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본다. 이렇게 성공적인 시범이 있기까지 시범에 참가한 시범단원을 비롯해 한인교포 사범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레닌그라드 방송국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관계자, 대한태권도협회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더불어 동·서의 해방무드와 함께 정부의 국가적 시책도 북방정책의 개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순수문화 차원에서 태권도 보급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노력해 나간다면 한·소관계의 증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 소련의 경제를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첫째, 태권도보급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 및 향상.

둘째, 세교스포들의 궁지와 결속력

확립

▲ 세계태권도연맹 및 관계기관(협회, 국기원)의 지원과 관심.

첫째, 한국사범의 파견

둘째, I.T.F 사범들의 초청 재교육

셋째, I.T.F 사범들의 현지 재교육 등을 통한 자격인정.

네째, 주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소련 현지 사범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다섯째, 각 공화국별 협회결성 유도.

여섯째, 대회 개최, 연방정부대회

개최 추진유도 및 지원. **태권**

심판 수신호

세계태권도연맹(WTF)은 '89년 10월7일 세계연맹총회이후 국제심판 수신호 개정작업에 착수, 개정된 경기규칙과 함께 '90년 10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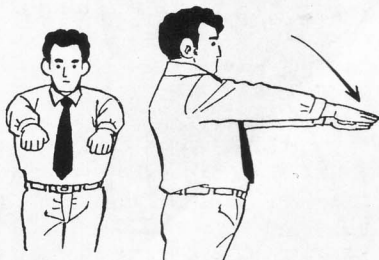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경기에 개정된 WTF심판 수신호를 '91년도 첫대회인 전국종별선수권대회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상임심판원 교육 및 심판강습회, 심판보수교육을 통해 이를 교육시킨바 있다.

여기에 변경 시행되는 심판수신호를 게재하여 일선 지도자 및 태권도선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차렷: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팔굽을 완전히 구부려 양편손을 정면을 향해 바로든다.



2. 경례(감독관에게): 양팔을 어깨높이로 수평이 되게 곧게 뻗어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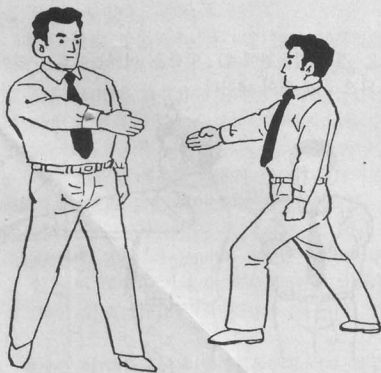
3. 좌우향 우: 뻗어진 양팔을 양손바닥이 마주 보게 틀면서 가슴앞으로 당겨붙인다.



4. 경례(선수간): 마주보고 있는 양손을 가슴앞으로 누르듯이 수평이 되게 내린다.



5. 준비: 왼발을 앞으로 내어 가벼운 앞굽이 자세를 취하면서 오른 세운 손날을 가슴높이 정도로 뻗어 내린다.



6. 시작: 앞에 놓인 왼발을 앞세기 정도의 보폭으로 당기면서 손날을 탄력을 주어 한번 튀기면서 들어 올린다.



7. 계시: 팔을 뻗어내리면서 오른 인지로 앞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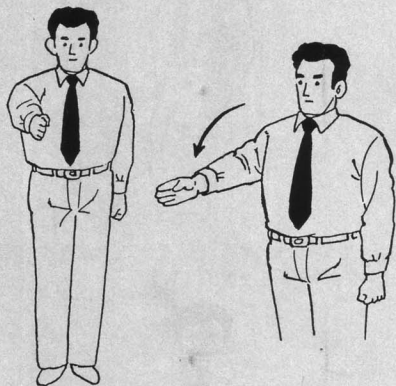
8. 시간: 양손의 인지를 인종높이에서 서로 겹쳐 X표를 만든다.



9. 계수: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낸다. 엄지 손가락부터 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과 열에서는 손을 틀어 손바닥이 선수를 향하게 한다.



10. 갈려,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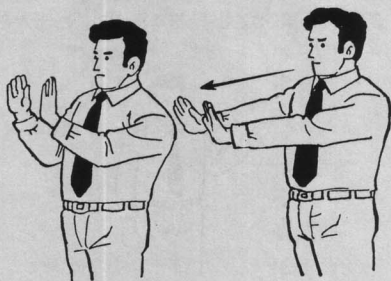
1. 잡는행위: 손바닥을 위로하여 편 상태에서 잡아쥐듯이 가슴앞으로 당긴다음, 인지를 편주먹으로 반대편 몸부위에 놓았다가 옆으로 뺄으면서 "경고하나"를 선언한다. 경고를 선언하는 동작은 모두 같다.

청(홍)!

해당선수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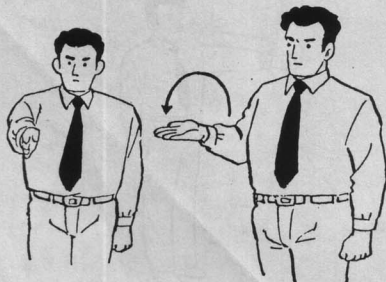
2. 미는행위 : 양손바닥을 펴 앞으로 보게하여 양손이 평행이 되게 앞으로 민다.



3. 끼는행위 :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가볍게 끼는 모양으로 들어올린다.



4.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팔굽을 굽힌채 세운 손날을 수평으로 내린다음 다시 들어올려 손바닥이 위를 보게 뒤집으면서 수평으로 내린다.



5. 등보이는행위 : 반대편 주먹을 가슴앞에 세워 편손끝으로 가볍게 주먹등에 댄다.



6.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 : 양무릎을 붙인채 가볍게 구부려주면서 손바닥이 아래를 보게 하여 밀로 눌러준다.



7. 업살부리는 행위 : 편손끝을 옆으로하여 입을 수평방향으로 뒤통이 대준다.



8.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들어 편손끝으로 댄다.



9. 낭심을 가격하는 행위 : 편손 끝으로 아랫배를 댄다.



10. 허벅지를 밟는 행위 : 편손 끝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댄다.



11. 얼굴치는 행위 : 팔굽을 굽혀 올리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치는 모양을 한다.



12. 득감점 시위 행위 : 바탕주먹이 정면을 향하게 하여 귀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가볍게 두번 위로 흔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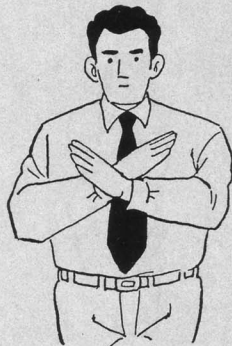
13.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 인지를 세워 입술위에 세로로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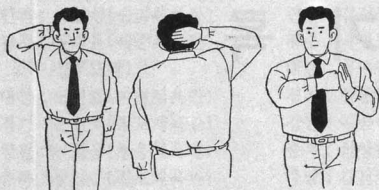
1. 넘어진 상대가격: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면서 손바닥으로 아래를 눌러 준 다음 반대편 손바닥을 가슴 높이에 세워 주먹으로 표적치기를 한다. 감점의 선언은 인지를 세워 팔을 바로 뺀어 올리면서 “감점하나”를 선언한다.



2. 갈려후공격: 양팔의 팔굽을 굽혀 가슴앞에 교차시킨 상태에서 아래로 엇갈아 뺀어 내린다음 주먹으로 표적치기를 한다.



3. 등부위공격;편손으로 뒤통수를 가볍게 댄 다음 주먹으로 표적치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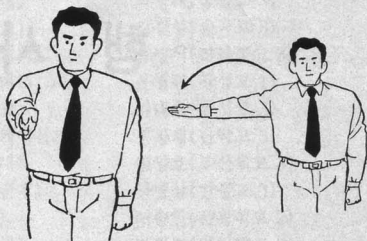
4. 얼굴을 심하게 가격하는 행위;경고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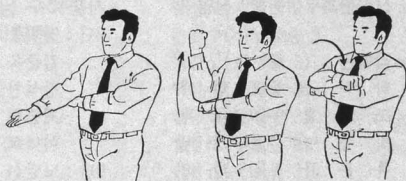
5. 박치기;편손끝으로 이마위를 세로로 가리킨다.



6.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세운 손날을 짓가슴높이로 수평이 되게 내린다음 포물선을 그리듯이 크게 젖혀 어깨 높이 정도로 옆으로 뺀어 손바닥이 위로되게 편다.



7. 잡아넘기는 행위;반대편 앞은 손날등으로 팔 굽밀을 댄다음 위로 양편 손바닥을 잡아 쥐듯이 앞으로 당긴 다음 가슴과 평행이되게 젖혀 누른다.



8.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경고와 같다.



행 사 기 록

인 사

'91년도 상임심판원

▲심판분과위원장 : 김대연
심판분과부위원장 : 김용길
심판분과부위원장 : 심명구

▲감독관

박 덕 규	조 한 우
조 호 철	고 국 환
박 종 명	문 창 남
유 문 규	김 강 인

▲심판

최돈오	양주호	노달선
이종찬	한상진	이천수
박경선	김경찬	이종관
김길주	최봉호	박종률
안태연	박홍신	장명수
장세백	황병재	송우길
김현수	권오민	이상곤
민준원	오수곤	강석환
김원기	이봉학	정정식
최복현	최정호	이규중
이정연	김혜연	장창영
이종근	김명환	김광현
김홍삼		

고단자 승단

'90년도 제4차 고단자 (6~9단)심사 ('90. 12. 8, 국기원)

▲서울

6단 : 양희종 조봉현 서상대
김준옥 정철훈 정시래
장석찬 최태근 노승재
최중현 박점수 이규중
이덕희
7단 : 노달선 오용진 최석철
고창수
8단 : 김동철 권영운 심재익
박찬수 김종길 전성환
김민중 구정도

▲전남

6단 : 전종열 박영철

▲경기

6단 : 김진택 안성훈 황인식
7단 : 문현호 김영국 강진봉
강명희 홍재환 이한주
8단 : 오창호

▲전북

6단 : 강영수 문승우 윤성모
황의철 고창원 오영복
임영휘

7단 : 최동열

▲경남

6단 : 방종근 조성윤 배용훈
7단 : 이광수 강문도
8단 : 이병길

▲인천

6단 : 성재준(유보)
8단 : 김광성 박 순

▲강원

6단 : 이광익

▲대전

6단 : 장태운

▲경북

7단 : 조경래

▲국방부

6단 : 이진옥

시 상

'91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1.31,올림픽회관 중회의실)

(우수도장상)

서울 : 라동식(증산체육관)
이동섭(한양체육관)
부산 : 이근우(전일체육관)

대구 : 이영호(용호체육관)
 인천 : 김진성(승리체육관)
 광주 : 원태윤(세종체육관
 성무도장)
 대전 : 노인호(여명체육관)
 경기 : 문현호(청도체육관)
 강원 : 안필용(쌍용체육관)
 충북 : 정만순(청도체육관)
 전북 : 강영수(서신체육관)
 전남 : 김이현(구례체육관)
 경북 : 김상일(동부체육관)
 경남 : 진귀운(하동체육관)
 제주 : 강중식(중앙체육관)

(지도상)

서울 : 이재봉(송곡고)
 부산 : 전상민(동성체육관)
 대구 : 이완욱(계명대)
 인천 : 양기모(인천체고)
 광주 : 문병영(전남체육관
 13도장)
 대전 : 유황국(대성고)
 경기 : 서정관(부안체육관)
 강원 : 이주복(호반체육관)
 충북 : 지민규(충북교육위원회)
 충남 : 양명목(보령군청)
 전북 : 최동열(전주공고)
 전남 : 최경량(영광중고)
 경북 : 장태영(포항수고)
 경남 : 김종관(현대자동차)
 제주 : 안영익(납주고)
 대학 : 권혁중(대한체과대)
 중고 : 유수철(리라공고)
 국교 : 박점수(강덕국교)

(경기상)

서울 : 장혁(한체대)
 부산 : 홍문주(동아대)

대구 : 조성호(계명대)
 인천 : 김정규(선인고)
 광주 : 나광운(광주협회)
 대전 : 정주철(충남대)
 경기 : 안홍엽(송림고)
 강원 : 이종선(설악케이블카)
 충북 : 선상준(청주대)
 충남 : 강전식(보령군청)
 전북 : 윤철(우석대)
 전남 : 지 환(여수고)
 경북 : 김득영(포항수고)
 경남 : 임상도(경남체고)
 제주 : 진정우(상무)
 대학 : 양인덕(상명여대)
 중고 : 박병준(리라공고)
 국교 : 양순호(서원국교)

'90년도 장학금 수여식 (1. 31,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대학부)

하태경(한체대 3)
 이현석(동아대 1)
 권혁선(한체대 3)
 김성진(한체대 1)
 박세진(경희대 1)
 이안호(경희대 1)
 양인덕(상명여대 3)
 박동선(성신여대 2)
 백영미(경희대 2)
 박진경(상명여대 3)

(고등부)

김인경(성동고 3)
 김광수(풍생고 3)
 김형태(광주체고 3)
 조영국(풍생고 3)
 주의홍(리라공고 3)

박형래(송실고 3)
 김진섭(송곡고 3)
 유병석(리라공고 3)
 윤병관(광성고 1)
 김태호(한성고 3)
 정광채(관악고 3)
 임영호(부산체고 3)
 강병삼(한성고 3)
 이승민(은광여고 2)
 박정희(인천체고 3)
 진용순(광명상고 1)
 김진성(송곡고 1)
 모선영(인덕공고 3)
 유수진(오산여중고 3)
 추수연(은광여고 2)

(중등부)

김정수(개성중 2)
 문권수(성남동중 3)
 지진성(한영중 3)
 이진우(부평중 3)
 김동현(동성중 3)
 정정래(구월중 2)
 김천규(동성중 3)
 박희강(풍생중 1)
 조명실(만수여중 1)
 이순희(대원여중 2)

(국민학교부)

조영진(광희국)
 장순호(쌍문국)
 양순호(서원국)
 이승재(보광국)
 강규선(성산국)
 유인평(한별국)
 송보선(금양국)
 김주연(단대국)
 장세용(거여국)
 이완기(서룡국)

한국국민학교연맹
'91년도 모범 태권어린이
표창(64개교 82명)

이성진(일 산)
 하정훈(일 산)
 함보석(원 당)
 김 현(연 풍)
 김대준(여 수 남)
 이 철(여 수 동)
 이준배(하 원)
 이상록(예산중앙)
 김대석(광 회)
 김기중(단 계)
 김형락(석 수)
 진련하(양 동)
 김연우(양 동)
 김영훈(미 동)
 박우철(")
 유병주(")
 임현우(")
 심범석(")
 김영식(")
 김동현(")
 안용관(")
 임대환(")
 나병일(")
 정훈규(")
 이성희(")
 간정미(")
 정성현(")
 이윤경(")
 박창훈(인천주안북)
 김주홍(회 망 대)
 장순호(쌍 문)
 김중환(퇴 계 원)
 임현우(미 금)
 배인문(보 광)
 황혜영(보 광)

김남규(양 목)
 이은한(위 성)
 연희태(면 목)
 강규선(성 산)
 한정훈(교 동)
 이춘기(남원운봉)
 김주연(단 대)
 정미향(덕 신)
 박지훈(영 북)
 한승대(우 산)
 이완기(서 룡)
 송영민(인천일신)
 정성윤(고창성송)
 노현구(성 남 북)
 강정혁(삼 원)
 최영훈(양 천)
 김선진(신 시 흥)
 박경호(소 래)
 정해진(옥 수)
 양태영(거 여)
 문명진(연 풍)
 전해원(남 천)
 정호열(청주서원)
 최성원(좌 천)
 정석범(풍 양)
 이현희(성 남 동)
 유인평(청주한별)
 장혁수(강 신)
 송보선(금 양)
 임치용(신 석)
 백성욱(왕 산)
 강종섭(신 일)
 강현주(탑 동)
 이계수(금 광)
 김성진(용 인)
 박용준(내 춘)
 신희중(인천동암)
 김근호(부 원)
 최육석(광 룡)

이순구(금 남)
 오진석(성 주)
 신창환(도 원)
 한창모(강 화)
 남궁승철(김 포)
 김석균(학 익 동)
 손성욱(구 월)
 최찬우(만 월)

훈장수여식
('90. 12. 29)

<체육훈장 거상상>

권태호(경희대)
 김철호(현대자동차)
 함준(현대자동차)
 장혁(한체대)
 이현석(동아대)
 정용석(현대자동차)
 원선진(효원고)
 정남숙(단국대)
 정완숙(성신여대 졸업)

<체육훈장 백미장>

강원식(본회 전문이사 ·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 여자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한용석(대전직할시협회장 ·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단장)

김영삼(본회 지도위원 ·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감독)

김우규(동아대 감독 ·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코치)
 최상진(상무)

장한철(전북협회 전무이사 · 제2회여자세계선수권대회 감독)
 이철주(동성중코치 · 제2회여자세계선수권대회 코치)

임신자(상명여대코치·제2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트레이너)

〈체육훈장 기린장〉

김지향(철산여중)
신재현(상무)
정동현(한체대)
김병철(한체대)
박세진(경희대)
전정우(상무)
공두환(경희대)
임창섭(경기대)
정제정(대구시협회)

〈체육포장〉

김순배(본회 이사·제3회 월
드게임 단장)

안종용(경기도협회 전무이사
· 제3회 월드컵 게임 감독)

전판선(경원대코치·제3회 월
드게임 코치)

임윤택(서울시협회·제3회
월드게임트레이너)

이계광(전본회 감사·월드컵
대회 단장)

박병철(강원도협회 전무이사
· 월드컵대회 감독)

이백운(숭실고 코치·월드컵
대회 코치)

한규인(전 협회 홍보실장·제
9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홍보부장)

〈대통령표창〉

정찬(경기도협회·제9회세계
선수권대회 트레이너)

양대승(한체대)
김소영(성신여대 졸업)
이은영(경희대 대학원)
김지숙(경희대 졸업)
박은미(성신여대)
박경숙(서귀포여고)

박경희(고양여중고)

장철(경희대)

이창진(경북협회)

김용수(현대자동차)

김현일(전북협회)

〈국무총리표창〉

전정우(경희대 조교)

국내대회

'91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3. 25~31, 국기원)

(중등부)

▲핀급

1위: 김 성 기 (강원중)
2위: 박 주 성 (구월중)
3위: 임 태 형 (완산중)
김 정 민 (구월중)

▲플라이급

1위: 김 덕 훈 (성남서중)
2위: 김 수 연 (광주체중)
3위: 김 성 진 (태성중)
허 치 행 (성남동중)

▲밴텀급

1위: 이 도 화 (공릉중)
2위: 김 형 구 (청주중)
3위: 모 중 호 (당곡중)
김 부 권 (광주체중)

▲페더급

1위: 김 인 동 (풍생중)
2위: 강 대 원 (해동중)
3위: 김 선 웅 (태성중)
이 민 철 (구월중)

▲라이트급

1위: 김 현 섭 (수원북중)

2위: 김 명 철 (효성중)

3위: 박 태 용 (한영중)

정 정 렬 (부천동중)

▲L-웰터급

1위: 유 근 무 (성남동중)

2위: 김 치 성 (구월중)

3위: 곽 영 진 (천안북중)

박 태 성 (한영중)

▲웰터급

1위: 차 용 희 (동성중)

2위: 황 경 범 (성남동중)

3위: 문 대 성 (구월중)

홍 성 보 (배명중)

▲L-미들급

1위: 신 원 범 (한영중)

2위: 전 유 곤 (영남중)

3위: 진 천 수 (한영중)

최 규 영 (구월중)

▲미들급

1위: 정 낙 기 (구월중)

2위: 문 용 철 (부평중)

3위: 고 성 범 (경수중)

고 성 석 (예산중)

▲L-헤비급

1위: 임 병 문 (경수중)

2위: 김 성 표 (신철원중)

3위: 양 현 진 (부천동중)

민 재 호 (구월중)

▲헤비급

1위: 강 훈 (한성중)

2위: 이 정 훈 (제물포중)

3위: 김 정 민 (자양중)

심 윤 섭 (부천동중)

(고등부)

▲판급

1위: 진 승 태 (경남체고)

2위: 여 원 재 (동성고)

3위: 문 성 태 (성동고)

김 정 오 (동성고)

▲플라이급

1위 : 황 동 환 (경남체고)

2위 : 박 영 민 (동천고)

3위 : 김 용 대 (전북체고)

정 하 준 (서울체고)

▲밴텀급

1위 : 김 형 원 (선인고)

2위 : 최 병 수 (정명고)

3위 : 이 남 규 (전북체고)

윤 용 식 (부산체고)

▲페더급

1위 : 김 정 호 (동성고)

2위 : 양 재 철 (단대부고)

3위 : 박 환 우 (광주체고)

김 동 민 (충북체고)

▲라이트급

1위 : 김 재 균 (한성고)

2위 : 김 인 용 (성동고)

3위 : 서 승 민 (광성고)

문 광 선 (광성고)

▲웰터급

1위 : 민 경 승 (대전체고)

2위 : 방 원 철 (여수고)

3위 : 김 명 진 (광주체고)

양 성 오 (성동고)

▲미들급

1위 : 서 현 석 (서울체고)

2위 : 강 대 호 (동천고)

3위 : 장 현 철 (리리공고)

김 영 호 (서울체고)

▲헤비급

1위 : 백 승 훈 (서울체고)

2위 : 이 범 석 (동성고)

3위 : 유인철 (강원사대부고)

서 정 규 (송곡고)

(대학 및 일반부)

▲핀급

1위 : 이 화 진 (희망체)

2위 : 김 재 영 (인천체전)

3위 : 박 준 형 (인천전대)

손 유 영 (인천전대)

▲플라이급

1위 : 이 중 덕 (세종대)

2위 : 박 경 환 (인천전대)

3위 : 권 철 현 (한영체)

최 상 길 (체과대)

▲밴텀급

1위 : 이 태 승 (세종대)

2위 : 이 원 준 (춘성군청)

3위 : 김 상 민 (강호체)

김 경 렬 (보령군청)

▲페더급

1위 : 소 대 호 (단국대)

2위 : 오 경 환 (창용체)

3위 : 김 상 일 (세종대)

신 지 호 (세종대)

▲라이트급

1위 : 김 혁 원 (단국대)

2위 : 추 대 식 (연세대)

3위 : 이 준 안 (세종대)

이 경 철 (인천전대)

▲웰터급

1위 : 김 태 광 (단국대)

2위 : 이 원 호 (수원대)

3위 : 윤 재 형 (체과대)

안 현 상 (군산대)

▲미들급

1위 : 김 종 권 (체과대)

2위 : 김 학 래 (군산대)

3위 : 전 현 석 (인천전대)

박 화 용 (인천대)

▲헤비급

1위 : 김 경 진 (군산대)

2위 : 김 재 호 (서울선교)

3위 : 문 귀 홍 (서울선교)

김 용 건 (단국대)

행사안내

▲ 대한태권도협회

'91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1. 대회일자

- 가. 1차 선발대회 : '91. 4. 9~11(3일간)
- 나. 2차 선발대회 : '91. 4. 16~18(3일간)
- 다. 최종선발대회 : '91. 4. 24~25(2일간)

2. 장 소 : 국기원

3. 자 격

- 가. 고등부 이상선수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자
- 다. 선발 후 강화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라. 최종전 진출권을 획득한 자가 1·2차 선발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치 아니한다.

4. 경기시간 :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

-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5. 계 체 량 : 경기개시 2시간 전(07:00)부터 실시

6. 접수마감

- 가. 1차 선발대회 : '91. 4. 2(화)
- 나. 2차 선발대회 : '91. 4. 12(화)
- 다. 최종선발대회 : '91. 4. 18(목)

7. 대표자 회의

- 가. 1차 선발대회 : '91. 4. 4(목)
14:00(올림픽회관)
- 나. 2차 선발대회 : '91. 4. 13(토)

14:00(올림픽회관)

다. 최종선발대회 : '91. 4. 24(수)

08:00(국기원)

8. 선발요령

- 가. 1차 선발대회 : 각 체급별 2명
- 나. 2차 선발대회 : 각 체급별 2명
- 다. 최종선발대회
 - 1) '90년도 대표선수 체급별 1·2위
 - 2) '90년도 1차 선발대회 체급별 1·2위
 - 3) '90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체급별 1·2위
 - 4) '91년도 1·2차 선발대회 체급별 각 1·2위 위 8명을 토너먼트전으로 개최한다.

9. 기 타

- 가. 최종선발대회는 3·4위전을 실시한다.
- 나. 최종선발대회 대상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2차 선발대회 3위자 중에서 우선 보충한다.
- 다. '90년도 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에 파견하여 메달을 획득치 못한 자는 최종전 진출권을 부여치 않음(1·2차전 참가가능)

10. 참가 신청비 없음.

'91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여자)

1. 대회일자

- 가. 1차 선발대회 : '91. 4. 19~20(2일간)
- 나. 최종 선발대회 : '91. 4. 24~25(2일간)

2. 장 소 : 국기원

3. 자 격

- 가. 만15세 이상 선수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가 없는자

나. 선발후 강화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자

다. 최종전 진출권을 획득한 자가 1차전에 참가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치 아니한다.

4. 경기시간 : 3분 3회전 중간 휴식1분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5. 계 체 량 : 경기 개시 2시간전(07:00)부터 실시

6. 접수마감

가. 1차 선발대회 : '91. 4. 12(금)

나. 최종 선발대회 : '91. 4. 20(토)

7. 대표자 회의

가. 1차 선발대회 : '91. 4. 15(월)

나. 최종 선발대회 : '91. 4. 24(수) 08:00
(국기원)

8. 선발요령

가. 1차 선발대회 각 체급별 2명

나. 최종 선발대회

1) '90년도 대표 선수 체급별 1·2위

2) '90년도 우수 선수 선발대회 체급별 1·2위

3) '90년도 1차 선발대회 체급별 1·2위

위 6명을 토너먼트전으로 개최한다.

9. 기 타

가. 최종 선발대회는 3·4위전을 실시하다.

나. 최종 선발대회 참가 대상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91년도 1차 선발대회 3위자 중에서 우선 보충한다.

다. '90년도 대표 선수로서 국제 대회에 파견하여 메달을 획득치 못한자는 최종전 진출권을 부여치 않음(1차전 참가 가능)

10. 참가 신청비 없음.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1. 일 시 : 5. 13~14

2. 장 소 : 국기원

3. 참가자격

가. '91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

나. 만15세 이상자(76. 5. 13이전 출생자)

4. 경기방법 : 각 체급별 토너먼트

5. 접수기간 : 5월초

6. 참 가 비 : 3,000원

제2차 고단자 심사대회(6~9단)

1. 일 시 : 6. 15

2. 장 소 : 국기원

3. 응 심 단 : 6·7·8·9단

4. 응심자격 : 심사규정 제8조 승단년한 경과자
(5~6단 : 5년, 6~7단 : 6년, 7~8단 : 7년,
8~9단 : 8년)

5.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시도협회장추천)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단, 8·9단 응심자는 이력서 1부 추가제출)

6. 원서마감 : 5월말

제26회 대통령기 전국단체체대항대회

1. 일 시 : 6. 17~21

2. 장 소 : 인천직할시

3. 참가자격 :

가. '91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나. 국기원 유단자로서 결격이 없는 자

4. 인원구성

가. 각부 참가팀별 체급별로 1명씩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5체급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나. 단체는 도장, 학교, 경찰, 군(상무), 직장팀으로 구성하되 선수등록시 소속으로 단일팀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한다.

나. 체급별 개인전으로 토너먼트, 단체전 복합 경기 방식에 의한다.

6. 접수장소 및 마감 : 6월초

7.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나. 학생팀은 재학증명서, 군팀은 복무확인서, 직장 및 실업팀은 재직증명서, 도장팀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8. 참가비 : 팀당 30,000원

▲ 국교 · 종교 · 대학연맹

제18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대회

1. 일 시 : 5. 1~4
2. 장 소 : 국기원
3. 주최·주관 : 한국중 · 고등학교태권도연맹
4. 참가자격
 - 가) '91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
 - 나) 국기원 유단 / 품 자로서 신체결격이 없는자
 - 다) 각팀 출전은 1팀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 라) 참가팀은 여중부 5체급, 여고부 5체급, 남중부 6체급, 남고부 5체급 이상의 단체팀만 참가할 수 있음

체 급

체급 \ 부별	고등부	여자부	중학교남자부	중학교여자부
핀 급	50까지	43까지	36까지	36까지
플라이급	50~54	43~37	36~40	36~39
밴 텀 급	54~58	47~51	40~44	36~39
페 더 급	58~64	51~55	44~48	42~45
라이트급	64~70	55~60	48~52	45~48
라이트웰더급			52~56	48~52
웰 터 급	70~76	60~65	56~60	52~56
라이트미들급			69~74	64~68
헤 비 급	83초과	70초과	74초과	68초과

- 가) 단체팀 구성이 안되는 팀은 참가할 수 없음
(단, 여자부는 단체팀 구성이 안되어도 개인이 참가할 수 있으나, 단체시상에는 제외됨)
- 바) 나이제한
 - 중등부 만16세까지
 - 고등부 만19세까지
- 사) 본연맹의 대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자
5. 신청마감 : 1991. 4. 17(수) 17:00까지
연맹사무실
6. 대표자회의 : 1991. 4. 20(토) 13:00
동성고등학교 시청각실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가) 대회참가 신청서1부(반드시 학교장의 직인을 필하여야 함)
- 나) 참가신청서는 본연맹에 직접 제출한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23호 대명빌딩505호 우편번호 : 135-080)
- 다) 유선신청은 일체접수치 않음. 단, 우편신청서 소인 일자는 91. 4. 13(토)까지만 접수함
- 라) '91년도 본연맹에 단체가입을 필하지 않은 학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제12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1. 일 시 : 1991. 5. 12(토)~13(일)
2. 장 소 : 장충체육관
3. 참가자격 : 단체가입이 된 학교 선수로서
 - 가. 국기원이 인정한 공인유포자
 - 나. '91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
 - 다. 본 연맹회원중 소지자(1991년도 발행)
 - 라. 국민학교 5·6학년 재학 남·여 학생
 - 마. 품새부문은 학년제한 없으며 품새부문 출전 선수가 겨루기 부문에도 참가 할 수 있음.
4. 참가인원
 - 가. 겨루기부문 : 체급별 2명이내로 5체급이상을 단체팀으로 인정함.
(여자부는 개인전으로만 실시)
단, 팀구성이 어려운 학교에 한하여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체급별 2명이내로 함.
 - 나. 품새부문 : 각 학년 3명이내로 하며 개인전으로만 실시한다.
5. 경기방법
 - 가. 겨루기 부문
 - 1) 체급별 개인전 토나먼트식 방법에 의한
 - 2) 1분 3회전으로 함(예선전은 운영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3) 협회제정 보호대(얼굴, 몸통, 팔, 다리)및 살보호대를 착용하며, 얼굴 보호대와 살보호대 및 팔, 다리 보호대는 선수 각자가 지참해야 함.
 - 4) 감독, 코치는 참가신청시 1인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자에 한하여, 선수 코치를 할 수 있음(현직교사 및 태권도 지도자 자격 소지자)

- 나. 품새부문 : 각학년별로 실시하며 태극 1~8장 및 고려품새 중에서 경기당일 2가지를 지정함.

6. 체 급

핀 급 : 30키로까지
플 라 이 급 : 30키로초과-32키로이하
밴 팀 급 : 32키로초과-34키로이하
페 더 급 : 34키로초과-36키로이하
라 이 트 급 : 36키로초과-38키로이하
라이트웰터급 : 38키로초과-40키로이하
웰 터 급 : 40키로초과-43키로이하
라이트미들급 : 43키로초과-46키로이하
미 들 급 : 46키로초과-49키로이하
라이트헤비급 : 49키로초과-52키로이하
헤 비 급 : 52키로초과

7. 계 체 량 : 본 연맹회원증과 선수증 소자에 한하며 5월 12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함

8. 접수기간 : 4월말경

9. 접수장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21-9 현대프라자
303호(목동APT 925동양)
전화 : 648-0006

10. 신청방법

가. 별첨양식에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본 연맹에 제출함.

나. 사진첨부란에는 직인으로 계인하여야 함.

제 18회 전국대학개인태권도대회

1. 일 시 : 1991. 5. 23~25

2. 장 소 : 국기원

3. 참가자격 : 국기원 유단자로 대학태권도 연맹에 가입한 대학의 재학생으로 본 연맹의 대회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자.

가. A조 : 고·대학시 전국규모대회의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B조 :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없는자. ('가'항에 해당되는 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전 대회에서 B조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도 B조로 재출전이 가능함)

다. 여자부는 A, B조 구분없이 실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한다.

4. 경기방법 : 남자부A, B조로 구분하여 각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

5. 경기시간 :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2분 3회전(휴식30초), 결승은 3분 3회전(휴식1분)으로 하며, B조와 여대부 경기시간은 결승까지 2분 3회전(휴식30초)으로 한다.

6. 계체시간 : 07:00~08:00까지

7. 접수마감 : 5월중순

8.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23 대명빌딩 505호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화 : 02-545-4707)

9. 제출서류 : 대회참가 신청서1부
(사진1매 필히부착)

▲국기원

제 13기 2급 경기지도자 교육

1. 일 시 : 4. 9~27

2. 장 소 :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3. 자격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호 3항 해당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호 3항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②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④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

단의 경력이 있는자

-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제출서류

가. 지원서1부(연수원 소정양식)

나. 사진5×5cm=5매

다.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사본불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불가)

5. 마 감 : 교육개시일자 15일전

(단, 교육인원 100명 선착순접수)

6. 접 수 처 : 국기원

7. 기 타 : 대한태권도협회장 추천서 필히첨부

1차 고단자 보수교육

1. 일 시 : 5. 10~11

2. 장 소 : 국기원

3. 자격기준 : 심사규정 제8조에 의거한 승단년령 및
년한경과자로서 고단자(6~9단) 응심
대상자

4. 제출서류

가. 수강신청서 1부(해당시도협회장 추천)

나. 주민등록등(초)본 1부(사본불가)

5. 마 감 : 교육개시일자 7일전(단, 교육인원
150명 선착순접수)

6. 접 수 처 : 국기원

7. 수 강 료 : 20,000원

제67기 태권도 지도자교육

1. 일 시 : 5. 22~31

2. 장 소 : 국기원

3. 자격기준

가. 고졸이상자.

단, 고졸이하자는 선수 또는 태권도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해당 시도협회장이 이를 인정 추천하여야 함(예 : 지도분야 5년이상 경력근거 첨부)

나. 만20세 이상자(입교일 기준)

다. 4단 승단일로부터 만3개월 경과자

4. 제출서류

가. 수강신청서 1부(사진3×4cm=3매)

해당시도협회장추천

나. 주민등록등(초)본 1부(사본불가)

다. 고졸이상자는 졸업증(원본)제출

5. 접수마감 : 교육개시일자 10일전

(단, 교육인원 150명 선착순접수)

6. 접 수 처 : 국기원

7. 수 강 료 : 50,000원

8. 기 타 : 사범지도자 자격증 취득자 3급 생활
체육 지도자 교육자격 부여

▲ 세계태권도연맹

1991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

1. 일 시 : 5.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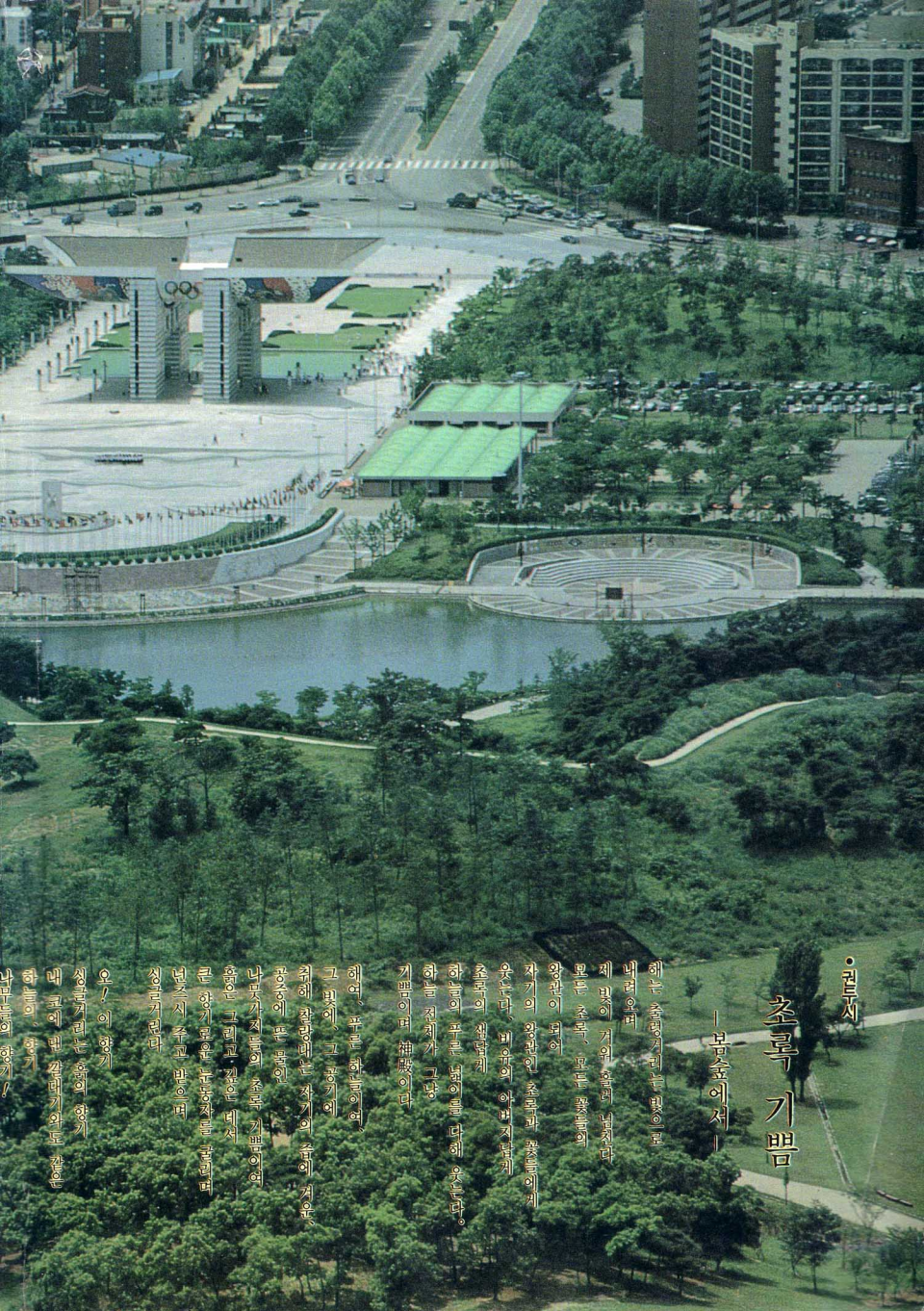
2. 장 소 : 유고, 자그레브

태권도



정현종

- 연세대 철학과 졸업
- 현재 연세대 국문과 교수
- 시집 『고통의 축제』 「나는 별아저씨」 『떨어져도 뒀는 공작령』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 시론집 『술과 꿈』
- 문학시집 『거지와 공인』
- 번역서로 베히타의 『스무명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에이즈 시선』 『프로스트 시선』 「야는 것이 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음



○ 권은지

초록 기쁨

— 봄 숲에서 —

해는 초록기라는 빛으로
내림으로써

제 빛이 겨우 흩날려 넘칠까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신랄과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 헤 웃는다,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袖膜이다

해인,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용기에

위해 환락대는 자기의 춤에 겨우
공중에 뜬 꽃이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여
흩날리는 그리고, 짙은 비석
문항기로운 눈동자를 굴러버려

넋지지 주고 받고 있으며
싱글기린다

오! 이 향기

싱글기리는 흙의 향기

네 코에 땀 날다가 와도 향은
하늘이, 향기

나뭇가지의 향기!



'90년도 결산이사회 개최

(1. 8, 올림픽유스호스텔)

전임 김운용회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결산 이사회.
'91년도의 예산액으로 총 7억 8천 6백여만원을
심의하였는데 이는 '90년도의 6억 7천 6백여
만원보다 18%증가된 것이다.

The Board of management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inancial year of 1990



대한태권도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90년도 사업결산과 '9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The annual congress of 1991

'9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1. 17,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The awarding ceremony of the Deploma for the members of Technical committee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학금
수여·협회표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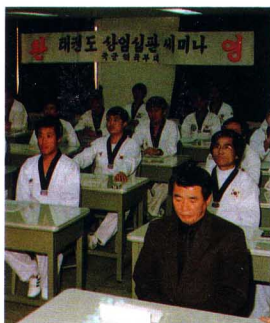
(1. 31,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위:기술심의회 김인석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가운데:우수선수 50명에게 총 3백 6십만원의 장학금을 수여
아래:우수도장상(사진), 지도상, 경기상을 수상한 영광의 얼굴들

상임심판원 임명 및 교육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44명의 상임심판원을 임명하고
3월18일과 19일 이틀간 국군체육부대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The appointment of full time judges
and instruction for them



'91 전국종별선수권대회

(3. 25~31, 국기원)

1743명이 참가 국내 단일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었다.
고등부 민급의 경우 231:1의 경쟁을 물리쳐야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